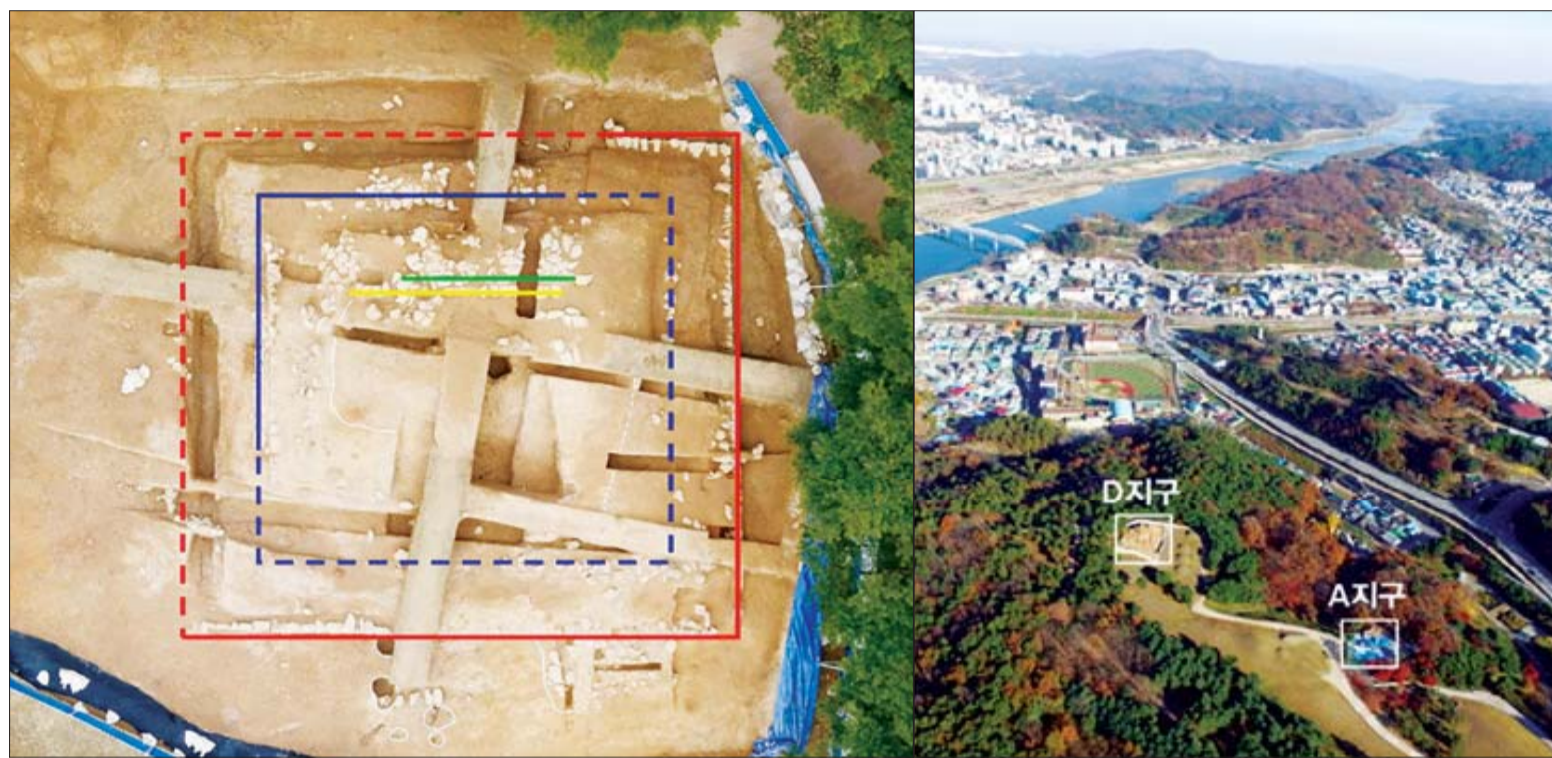




공주 송산리 고분군 30년 만의 재조사 완료

2018년 조사 결과, 3단의 계단식 석축시설과 대형 기둥 구멍 등 확인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문화재청(청장 정재숙)과 함께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사업'으로 추진한 공주 송산리 고분군(사적 제13호)의 제단유적에 대한 발굴 조사를 완료했다.

공주 송산리 고분군은 동남향의 능선을 따라 무명왕릉을 비롯하여 웅진도읍기 백제 왕실의 무덤이 집단 조성된 곳으로, 지난 1988년에는 고분군 내 제사유적 2곳에 대해 발굴조사를 했다.

이번 발굴조사는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원장 이종수)에서 올해 6월부터 6개월 동안 능선 하단

부(A지구)의 베토단 석축단 시설과 고분군의 최정상부(D지구)에 자리한 3단의 계단식 석축 시설에 대한 정도와 성격에 파악하고자 시행했다.

능선 하단부(A지구)에서는 약 205m 정도의 베토단 석축시설과 함께 그 중앙에서 가로 5.2m, 세로 2.1m, 깊이 3.1m의 거대한 구덩이를 확인했다. 석축시설 남쪽 밖에서도 이보다 약간 작은 구덩이가 확인되었는데, 이들 구덩이에는 신성구역임을 표시하는 시설이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남쪽의 작은 구덩이를

포함한 시설이 폐기된 후 중앙의 더 큰 구덩이가 조성되었음이 밝혀졌는데, 이들 제사유적이 적어도 두 시기에 걸쳐 조성·운용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더욱 눈길을 끄는 조사 결과는 고분군 최정상부(D지구)에서 확인한 3단의 계단식 석축단 시설이다. 이미 30년 전의 발굴조사 이후 그 성격에 대하여 적석총인지의 여부, 함께 단순 제단이었다는 설과 석탑일 가능성까지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어 왔던 시설이다.

이번 석축단 시설 조사 결과, 전

면 발굴조사를 했음에도 매장주체부를 분명하게 확인하지 못했으며, 남쪽 전면부에서 묶음을 이루는 기둥구멍이 확인되어 제사와 관련된 시설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조성기법에 있어 능선을 따라 상부는 삭토(削土)를 통해, 하부는 판축 등을 통해 조성한 것이 밝혀졌으며, 유구 주변에서는 쇠 시갈조사 이후 그 성격에 대하여 적석총인지의 여부, 함께 단순 제단이었다는 설과 석탑일 가능성까지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어 왔던 시설이다.

한편, 이번 조사된 석축단 시설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학술세미나가 5일 오후 1시, 공주대학교사범대 중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서울 석촌동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백제 고분과 제의시설에 대한 조사 성과, 그리고 서천 봉선리 유적에서 출토된 3단의 백제 제사시설 조사 성과 등을 이번 송산리 고분군의 발굴 결과와 함께 밀도 높게 논의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문화재청과 함께 송산리 고분군에 분포하고 있는 고분·석축단 시설 등의 성격을 밝힐 수 있는 추가 연구를 진행해 나가면서, 이를 바탕으로 고분군의 보존·관리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선 기자

공주=정성범 기자

충남도 '청년일자리 정책' 전국서 빛났다

청년고용 부문 '대상' 수상

충남도가 청년일자리 정책 추진 성과를 인정받으며 5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18 올해의 일자리 대상' 시상식에서 공공일자리·지방자치단체 청년 고용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018 올해의 일자리 대상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든 지방자치단체나 기업, 기관 등을 발굴해 모범사례를 전파함으로써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기업 경쟁력과 경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상이다.

올해 처음 제정된 이 상은 조선일보가 주최하고,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여성가족부 등이 후원했다.

도의 이번 수상은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할 것으로, 일자리 중심 도정을 통해 청년들의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 좋은 일자리 사업을 발굴·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도는 날로 악화되는 청년실업 지 청년일자리 5만개 창출을 목표로 하는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도내 15~39세 실업자와 취

업 가능 비경제 활동 청년 5만 7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이 기본계획은 '청년 고(Go) 영(Young)!' 5000개 일자리 창출, 충청남도 '로(路)를' 비전으로, 2대 정책 목표와 5개 정책 과제, 36개 청년일자리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도는 또 청년실업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 사업에 선정되며, 106억 원을 투입해 지역이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었다.

도는 이와 함께 청년일자리 창출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를 인식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충남 노사민정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더 행복한 청년 토(土) 콘서트'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100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청년 고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충남 청년 잡 드림(job dream) 페스티벌'과 '충남 열혈청년 잡다(job多) 페스티벌', '충남지방가능성대회' 등을 열었다.

이밖에 청년일자리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한 희망이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청년 눈높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해 취업 기회와 취업에 필요한 기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청년취업 역량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했다.

앞으로는 청년 창업가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할 수 있는 창업공간을 천안아산 KTX 역사 인근과 충남경제진흥원 내에 조성, 내년 상반기 문을 열 계획이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고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청년일자리 복지 지원 시책인 청년통장과 청년복지카드 사업에는 15억 원을 투입, 1080명의 청년 재직자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청년 취·창업 문제 해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생애주기 맞춤형 일자리 창출, 충남형 청년일자리 사업 발굴 추진, 청년 창업 프러자 조성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 창업 육성, 도-대학-기업 간 유기적인 협력력을 통한 청년의 지역 정착 유도, 생애주기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충남일자리진흥원 설립 등을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좋은 일자리는 지속가능한 충남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며 "도는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목소리가 담긴 삶이 있는 청년일자리 정책을 추진해 지역 청년 인재들이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찾고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규 기자

2019 대전방문의해 준비상황 보고회 개최

실·국·본부·자치구·공사·공단 한자리에

대전시는 5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실·국·본부, 자치구, 공사·공단이 모여 '2019대전방문의해'의 성공추진을 위한 준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국내관광 활성화 선도도시, 대전'을 비전으로 대전관광을 새롭게 조명하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 변화를 모색하고자 추진하는 대전방문의 해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열렸다. 참석자들은 그동안 추진사항과 2019년도 추진계획, 부서 간 협조 사항 등 전반적인 협의를 통해 전 부서·기관이 손잡고 준비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개방적인 마인드로 친절응대, 환경정비, 교통분야 등 방문객의 편의도모를 위한 점검을 추진하고, 각

종 행사·축제에서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는 등 대전을 적극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대전시 이은화 관광진흥과장은 "앞으로 대전의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내실 있게 추진하고 전부와 기관이 연계·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농어촌공 충남지역본부 공사 창립 110주년 기념식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본부장 김종필)는 5일 본부직원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부 대강당에서 '공사 창립 11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농어촌공사는 1908년 전북 옥구서부수리조합으로 시작하여 해방 후에는 수리시설과 농촌경제를 재건하는데 힘을 쏟았으며 6.25전쟁 후 인구 증가로 보릿고개로 상

정되는 굶주림을 극복하기 위해 개간과 간척, 경지정리 등 식량증산에 앞장섰다. 1990년대는 농업 개방화 시대에 대응한 경쟁력 있는 전업농 육성에 주력했다.

2000년대 이후 공사는 우리 농어촌의 다원적 가치 발굴,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및 농산림 육성 등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전문 공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반복되는 극심한 가뭄과 집중호우 등에도 발 빠르게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장기적인 기후변화에도 대응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지연금을 통해 고령 농업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2000년대 농지지원 사업으로 차세대 농업 후계자를 양성하는 등 농어촌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김종필 본부장은 "공사는 110년간 쌓아온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먹거리의 생산기반을 다지고 행복한 농어촌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YUNDAI
POWERTECH



Mission for Human

현대파워텍의 변속기 기술은 인간을 위해 헌신합니다

자동차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을 가장 행복하고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변속기 역시 그 목표를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현대파워텍의 변속기가 탑재되었다는 사실은으로도 자동차의 안전과 편안에 대한 신뢰를 받고,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느끼는 행복한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대파워텍의 인간을 위한 기술입니다.



HYUNDAI
POWERTECH

보령시의회, 현장확인 후 철저한 준비로 집행부 진담 행정사무감사 송고질의와 감사 '호평'

제8대 보령시의회의 2018 행정 사무감사가 의원들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송고질 의결로 7일간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지난달 27일부터 5일 끝난 집행부 행정사무감사가 전반적으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의원들의 수준 높은 질의가 돋보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의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특별교육을 2회에 걸쳐 수강하고, 시의회 역사상 가장 많은 자료 요청건수인 509건의 행감자료요청을 요청해 한 달여간 철저한 사전 준비와 스터디 모임까지 결성하는 등 행감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또한 의원들은 철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를 구성, 보령시 전반 정책 추진, 각종 계약 및 보조금 운영 등 회계처리 전반에 대한 정확한 문제제기 분석과 해결방안, 대안제시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는 등 행감 시작전부터 달랠진 분위기를 실감케 한바 있다.

주요 감사 내용으로는 대단위 정책 수립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주민참여 당부 ▲각종 계약체결시 공정한 회계처리 및 보조금 집행 철저한 정산 ▲지역브랜드 개발과 적극홍보를 위한 지역발전 견인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도로교통, 환경분야 신속한 민원 처리 등 주로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가 연일 계속됐다.

더욱이 12명의 의원 중 조선의

원이 8명으로 부실 행정감사가 우려 됐지만 이를 불식시킬 정도로 조선의원들의 민원 현장확인과 사전공부, 부서별 민감시간 검토를 철저히 해 집행부 공직자들을 긴장시켰다.

특히 이번 행정감사에서는 집행부 해당 과장들의 질의에 대한 설명이 부족할 시, 소속국장들이 직접 나서 해명과 부연설명,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느라 진땀을 빼는 광경이 곳곳에서 포착되기도 했다.

이는 예년의 행정감사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풍경으로 그만큼 의원들의 행정감사에 대한 준비가 철저했고,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기본에 충실했다고 볼 수 있다.

보령=김정미기자



유성구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과 함께 연말 위법행위 예방활동

대전시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연말을 맞이하여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선거지원단과 함께 지하철역과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리플렛을 나눠주는 등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공정선거지원단은 선거법위반행위 감시·단속 및 예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비선거시기에도 상시 채용·운영하고 있다.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직원뿐만 아니라 공정선거지원단과 함께 지난월부터 관내 지하철역과 경로당을 순회하며 유권자를 대상으로 투표참여 활동과 더불어 기부행위 상시제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천안 제3탄약창 주변 군사보호구역 4차 해제 확정

지난 40여 년간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던 천안시 성환읍 소재 제3탄약창 주변 14만평에 대한 보호구역해제가 확정됐다.

천안을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심의위원회'를 열어 성환읍 성월리 일원 14만평에 대한 보호구역 해제를 의결하고, 오늘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강력한 규제가 풀리면서 지역 주민들은 40여 년간 행사하지 못했던 재산권 등 기본권 행사가 가능해졌고 주변의 개

발여건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하게 됐다.

3탄약창 주변 보호구역 해제는 이번이 4번째다. 지난 2014년 1차 15만평 해제, 2015년 2차와 3차에 걸친 133만평 해체에 이어, 올해 4번째까지 약 423만평이 해제됐다.

박완주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부터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노력해왔다. 2014년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국회 토론회와 국방부 장관 면담 등을 통해 1~3차 해제를 이끌어 낸 뒤, 2016년에는 탄약창 주변지역에 대한 국가지원

을 명시한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탄약창 군사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직접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20대 국회에서도 제3탄약창과 국방부 관계자들을 만나 추가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이번 결과를 도출해냈다. 박 의원은 이날 서준석 국방부 차관을 직접 만나 국방부의 결정에 환영을 표하며, 협의에 성실히 임해준 점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국회=김성구기자

세종시의회, 2018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 수상

대사서금택 의장·최우수상이태환의원·우수상 차성호의원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과 이태환 의원, 차성호 산업건설위원회장은 12월 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2018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에서 각각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 연구 보고 비영리 민간단체인 여의도정책연구소가 주관하는 행사다. 행복지수 산정자료와 지방자치의회의 의원들의 조례 입안 및 지역 정책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의정대상 수상자를 선정한다.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연계 2018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서금택 의장은 재선 의원으로서 그간 활발한 입법활동과 조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실제로 서 의장은 연탄공장 자진 폐쇄와 도시재생사업 유치 지원 등을 이끈 주역이다.

서금택 의장은 "이 상은 개별 의원들의 우수함이 아닌 세종시의회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결과"라며 "대한민국에 지방자치분권의 가치가 깊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태환 의원 역시 재선의원으로서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입법 및 의정활동을 펼쳐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 의원은 제2대 의회 때 최연소로 의원에 당선돼 차세대 의회를 이끌 '젊은 리더'로 주목을 받아왔다.

이태환 의원은 "제3대 세종시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민생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펼쳐겠다"며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의회에 임하겠다는 그때의 각오와 다짐으로 일하겠다"고 밝혔다.

차성호 산업건설위원장은 조선의원 중 유일하게 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차 위원장은 산업건설위원회를 순조롭게 이끌며 안정감 있는 리더십으로 호평 받고 있다.

차성호 산업건설위원장은 "아직 이론적 것보다 해야 할 것이 많은 조선의원에게 이런 큰 상을 쥐 영광스럽다"며 "새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를 펼쳐 시민복지 증진에 앞장서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세종=김태성기자

바른미래당 '바른토론배틀 시즌2' 결승전 개최

정책과 입법과정까지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토론 문화

바른미래당이 야심차게 진행해 온 '바른토론배틀 시즌2'가 대망의 결승전이 12월 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바른토론배틀 시즌2'는 지난 10월부터 70여명의 참가자 모집을 시작으로 약 두 달에 걸쳐 토너먼트 과정을 거쳐 토론회와 의원의 현장참여 기회 확대는 물론 정책과 입법과정까지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토론 문화를 만들어왔다.

한편 이번 결승전은 최근 화제가 된 '심신미약 처벌 감경'과 관

련한 주제로 찬반토론을 진행하여 최종 우승자를 가리게 된다.▲찬성측은 '김현동 토론회', 멘토는 김성식 의원으로, 정책통 김성식 의원의 '치밀한 토론 설계'가 예상된다.

▲반대측은 '김홍균 토론회', 멘토는 임재훈 의원으로 지난 토너먼트 과정에서 토론회와 의원의 환상적인 호흡을 보여주었다. 결승진출자들은 현역국회의원과 55명의 심사평가단들이 인정한 토론실력을 가감 없이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결승 참가자 청년들

을 멘토링하게 될 김성식, 임재훈 두 명의 국회의원의 자존심을 건팽팽한 기싸움도 토론의 긴장감을 더해줄 예정이다. 최종 평가를 내릴 심사위원에는 당내 주요인사와 국회의원, 외부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과 국회의원들이 소통하며, 우수한 재발굴과 함께 젊은 정치를 지향하기 위해 기획된 '바른토론배틀 시즌2' 결승전 배틀은 바른미래당 공식 페이스북 북(<https://www.facebook.com/bareunmirandang>)을 통해 생중계되며, 현장관람도 가능하다.

국회=강철수기자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8주년 기념식

학술회의 개최

김대중평화센터(이사장 이희화)는 6일 오후 6시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8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 행사를 위해 김대중평화센터는 문화상 국회의장과 장흥식 단국대 이사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국민의 정부 장관과 전·현직 국회의원, 재인사 등으로 행사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행사는 문화상 국회의장의 개회사, 이낙연 국무총리의 축사와 박명림 김대중도서관장의 특별강연으로 진행된다.

김대중평화센터는 매년 기념식을 통해 노벨평화상 수상 의의의 계승·발전시키고자 노벨평화상 상급 이자와 후원금으로 4개중단을 통한 불우이웃돕기 성미(20kg, 1,500포)를 전달하고,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는 '영·호남상

생장학금'과 '서울평화희망장학금'을 대학생 20명(각 200만원)에게 수여하고 있다.

기념식 앞서 오후 2시 김대중도서관에서 '김대중 전집 출간과 김대중의 학술화·보편화·세계화'를 주제로 학술회의가 개최된다. 이는 2019년 발행 예정인 김대중 전집(30권) 출간을 계기로 김대중 대통령 관련 연구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는 학술회의가 될 것이다.

김성구기자

민주평화당 '소득주도 성장에 흥남기 물 타기인가'

성장에 흥남기 물 타기인가

민주평화당은 5일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집착한 문재인 정부의 흥남기 물타기란 의심을 지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평화당 문정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흥남기 부총리 후보자는 지명 일성으로 소득주도성장의 지속을 공언한 바 있다"며 "하지만 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흥남기 부총리 후보자의 정책 기조는 최저임금 인상폭의 속도조절과 탄력근로제의 기간 확대 추진, 딱 두 가지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가지 모두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소득주도 성장의 기조와는 거리가 멀다"며 "대체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소득주도성장이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을 외치며 갖가지 정책을 쏟아냈지만 통계에서 드러난 성적표는 시민들의 소득증가가 아니라 고소득자들만의 소득증가로 끝났다"며 "잘 알려진 것처럼 신입 경제부총리 후보자 흥남기는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에 입성, 기획비서관으로 캐비닛 문건의 작성자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가 정책의 달인일지 체제의 달인인지는 곧 판가름날 문제"라고 전했다.

국회=김성구기자

방한일 의원,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우수상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은(예선1)이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 18회 '2018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2018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은 여의도정책연구소가 전국 기초·광역자치단체 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제도 활성화 및 주민행복정책 입안 우수의원, 주민복지 증대, 삶의 질 향상, 경쟁력 있는 지역발전 시책 강령 등을 평가해 시상하는 상이다.

방한일 의원은 올해 하반기 충청남도의회에서 제도개혁 TF 입법정책분과위원장을 맡는 등 지방의정발전을 위해 앞장선 공로가 인정돼 '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방한일 의원은 "앞으로도 지방자치 활성화 및 22만 충남도민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정환기자

주승용 국회부의장 '소년법' 개정안 대표발의

주승용 국회 부의장(4선, 여수)은,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소년보호사건 기록 및 증거물에 대한 열람·등사권의 주제를 명시하도록 하는 '소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소년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

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열람·등사의 신청 주체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고 열람·등사의 허가가 전적으로 소년부 판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권한남용의 우려가 있다.

이날 발의된 개정안은 기록 및

증거물의 열람·등사 신청의 주체로 사건 본인, 보호자, 보조인 또는 피해자를 명시하여 법원에서 명시한 주제 이외의 자에 의한 열람·등사를 제한함으로써 소년보호사건의 비공개성을 보장하려는 데 개정안의 목적을 두고 있다.

국회=강철수기자

2019년도 교육청 예산안 15억 4877만원 삭감

대전시의회 예결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심의 의결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인식은 12월 4일부터 2일간 제2~3차 회의를 열고 2019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를 의결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본 예산액 대비 118%인 2,247억 5,100만원이 증가한 2조 1,279억 7,500만원으로, 과다 편성된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사업 등 총 6건 15억 4,877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의결했으며, 12월 14일 제4차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이날 교육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 주요 내용은 ▲윤종명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3)은 운영비, 인건비 등 사업유지 지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고, 회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투명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어린이 승차차 정보 및 위치정보 등 교원학부모 등이 인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 통학버스 위치알림서비스 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남진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1)은 무상급식의 전학년 전면시행에 따른 급식의 질과 안전성 문제 발생가능성에 대해 묻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체계 확립 방안 마련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져 줄 것을 요구하고 사교육절감형 학교 운영으로 실질적인 사교육비 경감 효과에 대해 질의하고 앞으로 공교육 내실화를 통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 1)은 가용재원의 추가 확보를 통해 낙후된 원도심의 교육환경개선에 투입되도록 하고, 학교주변 담장 등 위험한 시각지대의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과 함께 지방재정 상황·BTL사업 추진시 효율적 재정운용을 주문했다.

▲오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2)은 무상교육지원의 시·교육청간 협의 등 행정절차 지연 등에 대해 지적하고, 약속사업인 만큼 내년도에 무상교육지원이 본격화되어 학부모의 재정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대전교육 애플리케이션과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사업의 인터넷통신비 등 예산편성 시 낭비성 요인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다른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에 재원이 투자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찬술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 2)은 특성화고 체제개편을 위한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사업비와 관련, 지역내 공인회계사를 활용하여 특별회계감사를 통한 자료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피력하며 탐구학습장 운영은 과학체험 학습활동장으로 활용하여 과학분야 교육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확대 반영 등 내실있게 추진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채계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019년도 성인지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증가하여 긍정적이긴 하나 전체 예산규모에 비해서는 미미하고 일부 특정부서에만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전 부서의 성인지예산 교육참여와 성인지예산 지표확대를 요구하며, 결산과 성과관리가 연동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그러면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해 묻고, 행정환경 변화 대응 능력과 정보화 시대 대비 전문 행정인 육성교육을 적정하게 운영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김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 3)은 내년도 교육청예산 규모가 금년보다 118% 증가하였으나 대부분이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등 정직성 경비로서 내년도에는 초·중·고 무상급식 전면 확대와 지방재정 부담 등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영을 당부했다. 또한, 각종 자연재난,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시설물의 상시점검, 내진보강, 석면제거 등 교육환경 안전시설 개선을 당부했다.

김정환기자

충남소방복합시설 건립 사업 첫발

청양군, 자연 담은 소방교육·훈련장소와 군민과 어린이 위한 체험학습장 조성



김돈곤 청양군수의 민선7기 역점 추진사업이자 3만5000여명 청양군민의 염원인 충남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이 첫발을 내디뎠다.

군은 지난 4일 상황실에서 김돈곤 청양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용역관계자 등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소방복합시설 건축설

계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충남소방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첫 단계로써 설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설계용역사로

부터 건축설계와 일반설계 공모(안에) 관련 설명을 듣고 앞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계획을 전문가 및 관계자와 토의하는 자리가 됐다.

충남소방복합시설은 총사업비 484억9000만원을 투입 385,154㎡ 부지에 건축면적 196,648㎡(지하 1층/지상 6층)의 소방교육 및 훈련 시설과 주민들과 아이들을 위한 체험학습장인 야외테마파크와 생태보행로로 조성될 예정이다.

군은 2019년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관련 기관 및 부서협의를 거쳐 충남소방복합시설 착공에 돌입한 후 오는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돈곤 군수는 “청양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충남소방복합시설이 조속히 건립돼 전국의 랜드마크로 우뚝 설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군에서도 소방복합시설의 배후지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군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조기 건립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정성범 기자



미래엔 서해 에너지-서산시

CCTV 관제정보 공동 활용 업무협약

미래엔 서해 에너지(대표 박영수)는 지난 4일 서산시장에서 서산시의 CCTV 관제정보 공동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산시는 CCTV 관제 도중 가스시설 파

손 및 누출 의심이나 주변 위험 요인 발견 시, 혹은 각종 지하 매설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굴착공사 현장 발견 시, 민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미래엔 서해 에너지에 상황을 통보하고, 미

래엔 서해 에너지는 즉각 출동을 통해 사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박영수 대표이사는 “도시가스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본 협약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보다 안전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다양한 방향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일=최근수 기자

2018년(2017년 경영실적)기관경영실적평가

충남TP 최우수 기관 선정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인) 이하 충남TP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 18개 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2017년 경영실적) 기관경영실적평가에서 S등급을 획득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충남TP는 이번 평가에서 ▲충남의 미래먹거리 발굴 ▲성장단계별 중소기업 육성 ▲일자리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등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로써 충남TP는 올 초 충남도

가 실시한 2018년 공공기관장 경영평가에서도 최우수등급인 '가' 등급을 받은데 이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기관경영평가에서도 최우수 기관으로 잇따라 선정됨으로써 명실공히 충남의 기업지원 혁신거점기관으로서 위상을 굳혔다.

충남TP는 이번 평가에서 지역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양질의 기업지원 플랫폼 운영 및 기술개발 지원을 비롯해 중대형 국가 R&D 사업 수주 등의 성과장출형 조직 문화 정착, 경영 관리 및 성과창

출을 위한 조직, 인사 등 경영관리 분야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종인 원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을 한뜻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이번 평가 결과를 계기로 지역중소기업과 함께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기술혁신거점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TP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차세대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인 OLED, 플렉시블 등 핵심기술개발 및 플랫폼 구축에 국비와 지방비 5,281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김성구기자

“보령서 낭만적인 겨울추억 만들어 보자”

스케이트 테마파크·수목원 눈썰매·낭만사랑축제 개최

사계절 글로벌 해양관광 명품 도시 보령시가 관광객들에게 아주 특별하고 재미있는 겨울 낭만의 추억을 제공하기 위해 겨울에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는 먼저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 17일까지 60일간 대천해수욕장 마드광장에서 보령스케이트 테마파크를 운영한다. 시설 규모는 아이스링크 1500㎡(30m×50m), 민속썰매장 450㎡(30m×15m), 아이스투브슬라이드 300㎡(6.7m×45m)로 최대 400명까지 동시 입장이 가능하다.

입장료는 무료이고, 장비 대여료는 아이스링크 및 민속썰매장 2000원, 아이스투브슬라이드는 3000원이며,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만65세~만

70세미만보령시민은 50% 감면, 만70세 이상 보령시민은 무료이다.

개장식은 20일 오후 4시 30분부터 싱크로나이즈 공연, 불꽃쇼, 대형 트리 점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운영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주말은 오후 7시 30분까지이다.

또한 보령무궁화수목원(성주면 성주리 251-8)의 겨울철 이용률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비수기인 겨울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수목원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령무궁화수목원 내 눈썰매장을 운영한다.

운영은 20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로,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오후 1시부터 오후4시까지이고, 튜브 눈썰매 대여료 2000원만

있으면 이용이 가능하다. 눈썰매장은 슬로프 72m, 폭 9m의 규모이다.

아울러,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다양한 야간 경관조명과 공연, 로맨틱투어가 어우러지는 대천겨울바다 사랑축제가 열린다. 대천해수욕장 만남의 광장 등 머드데마거리에는 ‘빛의 로맨스’라는 주제로 22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LED해저터널, 불화로거리, 조개구이골목 LED 아치 등이 설치되고, ‘연인’에서 ‘부부’까지로 확대하는 1박2일 리미티드 프로그램, 사랑의 불꽃놀이 등이 열린다.

한편, 선착순으로 50쌍을 모집하는 1박2일 로맨틱 투어 이벤트 신청은 오는 14일까지 보령축제관광재단(041-930-8091)으로 하면 된다.

보령=김정미 기자

산림관광 공모전 시범사업 ‘성공적 마무리’

산림복지진흥원, 새 관광모델 등장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하 진흥원은 ‘2018년 대한민국 산림관광 콘텐츠·시범사업 공모전’에 선정된 산림관광 프로그램의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산림청과 KEB하나은행이 후원했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지역 생태·역사·문화·관광 자원과 산림복지서비스를 연계한 산림관광을 개발,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선팀은 ▲귀산촌인 2집(김홍식, 이관옥) ▲산림복지전문업 1팀(아미산숲센터) ▲여행사 2팀

(주여행문화학교 산책, 코레일관광개발)로 프로그램의 특성에 맞춰 1박2일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특히 ‘여행문화학교 산책’은 복잡한 도시에서 벗어나 숲과 자연이 주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산림관광 프로그램을 진행, 여행사로써 지역 생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공정여행을 추구했다.

‘코레일관광개발’도 열차를 이용한 자연친화형 관광을 진행했으며, 국립대관령치유의숲 방문 후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관광열차상품과 전국에 위치한 산림복지시설과 연계한 특화 관광상품을 구상했다.

진흥원은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사

회 경제효과 등을 분석한 운영사례집을 전파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림복지전문업과 여행사 등 민간부분과 협업해 산림관광 자원을 활용한 숲관광, 숲레저와 같은 새로운 시장 개척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윤영균 원장은 “앞으로도 많은 국민이 산림관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흥원은 지난 8월 ‘2018년 대한민국 산림관광 콘텐츠·시범사업 공모전’에서 최종 5개의 제안서를 선정했으며, 100여명의 참여자가 국립양평치유의숲, 국립대관령치유의숲, 국립장성치유의숲을 체험하고 이와 연계한 산림관광을 경험·공유했다.

송병배 기자

마음 든든~ 보장 든든~!

더 든든해진 장기요양보험!

경제적 어려움까지 더 안드러지고 싶기에 [민간지원 등급 신설]

지원대상 중산층까지 늘려 경제적 부담을 낮춰주는 본인부담 경감 확대

노년장기요양보험이 더 든든해집니다.

경제적 부담을 더 안드러지고 싶기에 [본인부담 경감 확대]

연령별 본인부담률	중산층 본인부담률	중산층 본인부담률	중산층 본인부담률
70세 이상	20% → 15%	20% → 15%	20% → 15%
65~69세	20% → 15%	20% → 15%	20% → 15%

경증치매 어르신까지 더 안드러지고 싶기에 [민간지원 등급 신설]

구분	지원대상	지원대상	지원대상
중·고령 치매 어르신	중·고령 치매 어르신	중·고령 치매 어르신	중·고령 치매 어르신

● 특 정 ●

2018 유아교육 행복 한마당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6일 오후 3시 대전 교육 과학 연구원에서 열리는 '2018 유아교육 행복 한마당'에 참석.

2018 생명산업대전



김종천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 6일 오전 10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18 생명산업대전에 참석하고 오후 4시 원주인터빌호텔에서 열리는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 참석.

일출장학회 이사회 개최



황인호 동구청장 = 6일 오전 11시 30분 10층 중회의실에서 일출장학회 이사회를 개최.

중부모범여자대학교 소양교육



박용갑 중구청장 = 6일 오전 11시 목동에 위치한 중부모범여자대학교 푸른홀에서 열리는 '중부모범여자대학교 소양교육' 참석.

청산년통합지원체계 활동보고대회



장종태 서구청장 = 6일 오후 4시에 새마을금고 가수원지점에서 열리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활동보고대회에 참석.

유이쉴터원 준공식



정용래 유성구청장 = 6일 오후 2시 은구비역사공원에서 열리는 유이쉴터원 준공식에 참석.

목요 현장데이트



박정현 대덕구청장 = 6일 오후 2시 20분부터 신대경로당 7곳에서 목요 현장데이트를 열고 주민과의 소통에 나선다.

2019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사업 참여자 모집

대덕구청 장애인복지관(관장 안광훈)은 '2019년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에 만18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 참여자를 모집한다.

선발된 인원은 2019년 1월 2일 ~ 12월 31일까지 주5일(주25시간 이내) 근무하며, 월 1093,850원(4대보험, 본인 부담금 포함)의 보수를 받는다.

접수는 4월 ~ 18일까지이며, 접수 후 선발 기준 및 평가에 의해 12명이 선발되어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송병배 기자

대덕구 '청춘방송국' 수료식 마쳐

27명 수상, 방송제작 및 뉴스 진행 통해 지역의 미담 전해 줄 예정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어르신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이었던 '청춘방송국'이 지난 4일 수료식을 가졌다. 이날 수료식에는 그간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전하고, 지역민을 대변했던 27명의 어르신 청춘기자들이 수상을 받았다.

예전 한 공중파 예능 프로그램 "남자의 자격"이란 프로그램에는 "청춘합창단"은 세대와 나이를 물론하고 감동을 선사하며 그 자체로 한편의 드라마로 시청자들의 찬사를 받았다. 60대는 물론 70,80대까지 백발성성한 노인들이 합창에 도전한다는 게 놀라웠고, 몇 곡이나 되는 노래를 완성하며, 주어진 무대를 마치는 모습은 여할 나위 없이 감동적이었다. 그리고 그 감동이 대전으로 이어졌다.

건강한 노년을 향한 첫 걸음을, 문화를 통해 이루고,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민과 함께 동행하는 방송환경을 만들기 위한 "비바! 대덕청춘방송국"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대덕문화원이 주관하는 어르신문화예술 교육프



로그램이다. 구성원의 평균연령은 85세에 이른다.

지난 4일 대동동주민자치센터 2층 강당에서는 이명순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청춘방송국 수료식 및 시상식이 진행되어 회제를 모았다. 이날은 대전 대덕구 대화동 중앙경로당 어르신 27명이 방송 제작교육을 받은 9개월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수료식이 이어졌으며 CMB대전방송 최병욱 이사과 KT올레TV대전방송 이운우 대표가 내빈으로 참여해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이 날 수상에는 최우수 연출상

에 한운교(86세)씨, 최우수 기자 상에는 이재관(79세)씨, 방송대상에는 조만형씨(81세)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종철 대덕문화원장은 "앞으로도 청춘방송국은 지역방송은 물론, 유튜브나 다양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소통 채널을 통해 직접 어르신들이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희내 교육담당PD는 "앞으로 청춘방송국의 어르신 기자들이 대전시와 대덕구의 다양한 소식과 미담들을 영상을 통해 전해줄

예정이다"며 많은 응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김민성 기자

대전형 스마트시티 정책세미나

대전시는 5일 오전 10시 30분 둔산동 컨더오페라 2층 리셉션에서 '4차산업혁명특별시에서의 스마트시티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스마트시티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스마트시티 주요 관련 부처와 산하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스마트시티추진단'을 중심으로 정부의 스마트시티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스마트시티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실제로 대전시의 핵심정책인 4차산업혁명 특별시 조성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체험하고 실현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으며, 중앙정부도 스마트시티 사업을 중요한 국가정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주제 발표는 국토연구원 이재용 스마트녹색도시연구센터장의 '정부의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동향' 주제발표에 이어 민·관의 협력을 위해 대전관내 기업의 스마트시티 서비스기술을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날 주제발표에 이어 '무선 주차서비스 기술'을, ㈜유메인 백성석 부사장은 '초 광대역 레이다 기술'을 소개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날 주제발표에 이어 '무선 주차서비스 기술'을, ㈜유메인 백성석 부사장은 '초 광대역 레이다 기술'을 소개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대전시 이택구 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 대전시가 쌓아온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대덕 연구개발 특구, 4차산업혁명특별시 조성계획 등과 연계한 대전 특화형 스마트시티 전략을 발굴해 경쟁력 있는 스마트시티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2018 환경이카데미 개최

대전시는 5일 오후 2시 대전시청 세미나실에서 다변화되고 있는 환경 분야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직원들의 업무역량강화를 위한 '2018년 환경이카데미'를 개최했다.

환경이카데미는 시와 자치구, 산하기관 환경 분야 공무원 및 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국가 기후변화저용센터 임영신 전문연구원 이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전략 및 사례'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임 전문연구원은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방정부에서 기후변화 적응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계획의 전체적인 구조와 과정이 모두 기후변화 적응대책"이라며 각종 사례를 통한 대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대전시 김주자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대전시의 적응대책에 대하여 이해의 폭을 넓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대전시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완화 및 사전예방에 선제적,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영호 기자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완료

마을 사회안전망 구축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 만년동 안심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대표 박종익)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을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18년 대전시 공모사업에 선정,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민·관·학이 협력하여, 어린이 보호방호 울타리 설치, 초등 학교 담장 안전홍보 안내판 설치,

어린이공원 조명정비 및 자연 놀이터 조성, 공동주택 행복 편지 배달, 청소년 급연계도 관련 설치, 야간 주민 자율순찰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주민 스스로 마을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우범지역 해소를 사회적 약자와 아이들이 행복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안심마을을 구현한 결과이다.

특히,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는 "만년동의 공원에 아이들이 많아서, 학교 주변 환경이 정화되고, 공동주택에 행복 편지가 배달되는 등 마을 곳곳이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 너무 맘이 놓인다"고 말했다.

박종익 만년동장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구성하고 안전한 마을을 위하여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주민들의 성숙한 주인 의식과 열정에 박수를 보내며, 살기 좋고 싶은 만년동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종익 기자

한울로타리클럽, 자선음악회 수익금 전액 후원

지역 빈곤가정 아동 돕기 나눔 실천



국제로타리3680지구 한울로타리클럽은 5일 오전 10시 30분 대전 서구청장실에서 한울로타리 회장 취임기념 자선음악회 수익

금 200만원을 장종태 서구청장 및 최병욱 한울로타리클럽 회장 및 임원, 박미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전지역본부장 등 관계자

가 참여한 가운데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조성된 기부금은 지난달 22일 대전시 서구청 대강당에서 있었던 '자선음악회'에서 서구지역 빈곤가정 어린이를 돕기 위해 모아진 금액으로 서구 지역 8명의 저소득가정 아동에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후원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 참여한 최병욱 한울로타리 회장은 "지난 35년간 봉사의 길을 걸어 왔고, 새롭게 한울로타리 회장을 맡게 되면서 보다 의미있게 나눔을 실천하고자 취임식을 대신해 자선음악회를 열게 됐다"며, "참여한 연주가 및 공연팀 들이 모두 재능기부로 참여해주어 기쁨마련에 많은 도움이 되어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송병배 기자



취약계층 소원 선물 전달하는 산타발대식 개최

"유성형 복지시스템 만든다"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5일 구청 대강당에서 취약계층의 소원 선물을 전달하는 산타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산타발대식은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오정수) 및 유성구청복네트워크(상임대표 이연형), 유성구행복누리재단이사장 김홍해이 공동 주관하는 사업으로 올해 세 번째를 맞이했다.

또한, 유성구청복네트워크는 어려운 이웃에게 산타의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소원을 말해봐' 프로젝트로 '소원을 말해봐' 프로젝트를 통해 3,000만원의 후원금을 모금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정용래 유성구청장을 비롯해 구의원, 유성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유성구청복네트워크 회원, 기부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타발대식을 갖고, 60명의 산타가 취약계층 40가구에 소원을 전달하기 위해 출발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소원을 말해봐 프로젝트에 마음을 모아 주신 후원자분들께 감사드리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나눔의 손길이 제대로 전해질 수 있는 더 좋은 유성형 복지시스템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봉관 기자

2018년도 자치구 자원순환행정 평가

중구 2년 연속 선정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대전시에서 실시한 2018년도 자치구 자원순환행정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과 특별조성교부금 7천만원을 받을 예정이다. 5일 밝혔다.

자원순환행정 평가는 자치구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우수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시작됐으며,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로 실시된다. 서면평가 항목은 청소와 재활용분야로 중구는 청소행정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청소년 자원봉사를 활용한 중심거리 청소 ▲사용가능한 소파나 탁자 등 대형폐물을 필요한 가정과 경로당 전

달 등의 사례를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구는 지난해 자원순환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올해에는 최우수기관 선정의 기쁨을 안게 됐다. 7천만원의 특별조성교부금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에 사용될 계획이다.

박용갑 청장은 "깨끗한 마을을 만드는 것은 자치구 사업 중 중요한 사업 중 하나라고 생각해 직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현장행정을 펼친 결과라고 생각해 기쁘고, 앞으로도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태선 기자



2019년도 제대군인 전문위탁교육 설명회 개최

대전지방보훈청 대전제대군인지원센터는 '2019년도 제대군인 전문위탁교육' 공모에 참여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3일 대전보훈청 5층 대강당에서 교육과정 설명회를 가졌다. 교육설명회는 교육지원대상 제대(예정)군인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모제안한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해 교육기관 선정을 위한 사전 검토를 위해 진행됐다.

광고문의 (042)538-3030

청양군 “원예산업발전 속도낸다”

산지조직화와 통합마케팅 추진... 5대 전략품목 육성 통한 2022년까지 180억 달성목표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원예농산물의 산지유통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지조직화와 통합마케팅을 추진한다.

군은 지난 3일 군청 상황실에서 김돈곤 군수, 통합마케팅조직, 충남도, 지역농협, 공동선별조직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예산업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청양군은 앞서 원예농산물의 생산, 유통, 마케팅을 아우르는 원예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실무협의회 및 간담회를 통해 출하목표 설정, 연차별 사업계획을 이행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양군 원예산업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연차별 설명 등 지난해 7월 수립한 원예산업종합발전계획(2018년~2022년)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원예산업발전 계획은 기존 농정페러다임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 농민은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집중하고, 통합마케팅조직은 생산된 농산물을 제값을 받을 수 있게 적극적인 마케팅을 추진하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은 농산물 산지유통의 규모화와 전문화를 위해 마케팅 주체를 통합하고, 조직운영과 시설지원 체계화를

목표로 추진한다.

그동안 통합마케팅 조직 참여와 상관없이 지원되던 생산기반시설 및 유통시설을 연차별로 조건을 강화해 공선출하회 중심으로 바뀌어 2022년까지 조직화 투입액 180억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청양군 원예농산물 출하구조를 원예산업발전계획 수립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 도매시장에 66.3%, 대형유통 9.7%, 기타 24%의 출하 구조에서 도매시장 53%, 대형유통 27% 기타 20%의 구조로 다변화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군은 내년에는 농가조직화와 통합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공동브랜드 육성 등 9개 사업에 총 8억여원을 들여 추진할 예정이다.

김돈곤 군수는 “우리 농업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수급 불안과 소비감소, 수입농산물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유통시장 다변화로 산지 조직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공선출하회 조직을 중심으로 농가조직화 기반을 튼튼히 하고, 소비자의 트렌드에 맞춘 전략적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후 “이를 위해 충남도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정성범기자



제11기 서산시농업인대학 수료식 가져

서산시가 서산농업의 혁신과 변화를 선도할 지역리더 양성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운영했던 제11기 서산시농업인대학이 지난 3일 서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수료식을 끝으로 마무리했다.

이날 맹정호 서산시장과 교육생, 가족, 관계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식품과정 30명, 도시농업과정 29명 등 총 59명이 수료증을 받았다.

또한 충청남도지사 표창을 받은 서동관(부석면교육생)을 비롯해 농업인대학 운영에 적극 참여한 교육생 7명에 대한 수료식 진행했다.

그동안 교육생들은 전문가로부터 발표식품 기초이론 및 실습, 토양관리와 농산물 재배기술, 도시농업 활성화방안, 현장실습, 워크숍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과정을 이수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올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10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꾸준한 교육을 받아온 교육생들의 열정에 감사드립니다.”며 “농업인대학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기술, 경험을 토대로 서산농업의 경쟁력을 높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제12기 서산시농업인대학을 내년 2월중 공고를 통해 교육생을 모집해 서산농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서산=김정환기자



‘상상나침반캠프’ 4기 참가자 모집

KT&G(사장 백복인)가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직무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상상나침반캠프’ 4기 참가자를 오는 1월 6일까지 모집한다.

‘상상나침반캠프’는 진로 선택으로 고민하는 대학생들을 위해 KT&G가 개발한 진로 설정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2차 3일간의 합숙기간 동안 역량진단과 직무 분석, 진로 로드맵 수립 등의 커리큘럼을 통해 향후 진로 방향 설정에 도움을 받고, 구체적인 취업 목표를 세울 수 있다.

이번 캠프에서는 직무 강의 확대에 산업 및 직무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자기개발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피드백도 받을 수 있다. 또한 합숙기간 동안 개별 전담 멘토가 배치되어 더욱 세밀한 상담이 가능하다.

대학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KT&G 상상유니브 홈페이지(www.sangsanguniv.com)에 지원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된다.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100여 명이 선발되며, 캠프는 내년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KT&G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다.

KT&G는 ‘상상나침반캠프’ 외에도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을 위한 실전 취업 컨설팅 프로그램인 ‘상상커리어캠프’를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역량을 갖춘 미래 마케팅을 육성하고자 2010년부터 ‘상상마케팅스쿨’도 운영중이다.

KT&G 관계자는 “치열한 취업 관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상상나침반캠프’ 역시 대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선기자

당진시-홍대개미-해나루쌀 조공법인 당진쌀 판매 협력



당진시와 ㈜후니에프엔비(홍대개미), 당진 해나루쌀 조공법인이 당진쌀 소비 촉진을 위해 손을 잡았다.

김홍장 당진시장과 홍대개미 임준성 대표, 당진 해나루쌀 조공법인 박승석 대표이사는 5일 오전 11시 당진 시청에서 당진쌀 판매 확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 배경에는 최근 변화되는 먹거리 시장 흐름이 외식산업과 밀접하게 연계되고 이에 발맞춰 성장하는 대형 외식업체에 당진쌀을 조기 입점시킴으로써 해나루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전국적인 유통망을 구축해보자는 데 있다.

협약에 따라 당진시는 유통업 상생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안전하고 최고품질의 당진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과 유통, 마케팅 등에 행정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

또한 ㈜후니에프엔비는 지속적으로 당진 농산물 구매에 적극 참여하고 당진 농산물 홍보와 판로 개척을 위해 함께 노력키로 했으며, 당진 해나루쌀 조공법인은 최고품질의 해나루쌀 생산을 위한 노력과 동시에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철저한 품질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당진 해나루쌀 조공법인은 지난 2016년 당진, 송악, 송산농협 RPC(DSC)가 통합되면서 설립된 이후 공격적인 마케팅과 더불어 지난해 도입한 무세미 시설 구축으로 ‘씻어 나온 쌀’로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등 단계급식 납품업체를 비롯한 대형 김밥 프랜차이즈 등에서 입소문이 나 있다.

당진=최근수기자

아산시측량업협의회 취약계층 위한 후원물품 전달



아산시 측량업협의회(회장 유수영)에서는 지난 4일, 아산시(시장 오세현)에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자를 위한 후원물품인 상품권을 전달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서부농협 서구청 쌀 1만kg 기탁

서부농협은 5일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쌀 1만kg(2000만원 상당)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대전 서구청에 기탁했다.

이번에 기탁된 쌀은대전 서구 지역 내 소외계층 830가구에 전달 될 예정이다. 서부농협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11년간 매년 2000만원 상당의 대전지역 쌀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했다.

임현성 조합장은 “서부농협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이웃과 함께하며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역농협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산림치유원 “피톤치드 여름 가장 많이 배출”

산림이 울창한 숲길의 피톤치드(NVOCs, Natural Volatile Organic Compounds, 천연휘발성유기화합물, 피톤치드(Phytoncide)) 농도는 여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윤영균)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매월 1회) 경북영주시 봉천면 국립산림치유원 마실치유숲길에서 계절별 피톤치드 농도 분포를 측정해 결과 여름(187.82pptv), 봄(97.31pptv), 가을(77.91pptv), 겨울(25.61pptv) 순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온·습도가 높고, 풍속이 약할 때 피톤치드 농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간별 피톤치드 평균 농도는 오전 8시 79.37pptv, 낮 12시 104.24pptv, 오후 5시 107.87pptv로 오후시간대가 높게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국립산림치유원 치유효과분석센터(치유자원조사팀)에서 산림의 대표적 치유인자인 피톤치드의 계절별·시간별 발생특성을 분석, 기상환경 인자와의 상관성을 밝혀 산림치유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마련됐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인간식물환경학회지 제21권 5호(제철·시간·기상인자)에 따른 피톤치드(NVOCs) 농도 특성 연구-국립산림치유원 내 소나무림을 중심으로, 2018년 10월에 게재됐다.

치유원은 앞으로도 숲길 내 피톤치드를 꾸준히 포집·분석해 기상인자의 영향에 따른 피톤치드 발생 특성을 밝히고, 다양한 치유인자를 조사해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산림치유효과를 알릴 계획이다.

피톤치드란 식물이 만들어내는 살균작용을 가진 모든 화합물의 총칭으로, 산림에서는 주로 휘발성의 형태로 존재해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인체에 흡수되는 물질이다.

이는 경관, 음이온, 소리, 햇빛과 함께 향염, 향균, 살충, 면역증진, 스트레스 조절 등의 건강 증진 효과를 주는 대표적인 산림치유인자로 알려져 있다.

송병배기자



(주)씨에스캠텍(대표이사 백진영)이 지난 4일, 아산시(시장 오세현)에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자를 위한 후원물품 주부세제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후원물품은 17,640kg(3천만원 상당)의 주부세제로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읍면동 행복키움추진단의 추천을 받은 취약계층 대상자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주)씨에스캠텍

미세먼지 특보 따른 긴급대책회의

아산시, 비상조치사항 점검 · 빠르게 대처 위해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4일 시청 상황실에서 최근 중국 발 미세먼지 유입 등으로 11월에만 충남 북부권(아산·천안·당진)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7회 발령되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것을 예상됨에 따라 비상조치사항을 점검하고 이를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미세먼지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다.

오세현 시장의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는 국·과장 및 사업소·읍·면·동장이 참석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부서별 비상조치 조치보고와 미비점 보완사항을 논의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 조치는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발령 시 ▲상황전파 및 행동요령 홍보와 ▲공공기관연차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조정 ▲시 발주 공사장 운영조정 ▲노면정소차 운영시간 확대 등 공공기관의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전파 및 홍보로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이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겨울철을 대비해 청장년층 보다 폐기물이 부족하고 실외활동이 많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미세먼지마스크 3만개를 구입해 지역아동센터(39개소)에 12월 중 우선 지급하고,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발령 시 시청·읍면동 사무소 민원실에 비치해 방문하는 어린이에 한해 1인 1매 미세먼지마스크를 무료지급하기로 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소규모 창업기업 품질경영 역량 키운다

세종시, 현장체험 중심 품질경영 마인드 강화 교육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창업기업 등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품질경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5일 연동면 소재 페더럴모듈세종주 분사에서 현장 견학 위주의 품질경영 마인드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시가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본부장 한정길)가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관내 우수 품질경영 기업 활동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이 진행된 페더럴모듈세종주는 지난 1947년 창립 이래 기술혁신, 품질혁신, 원가혁신, 관리

혁신을 바탕으로 제조 연료 효율성을 높이고, 배기가스를 줄이는 등 자동차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세종시 대표 품질선도기업이다.

이날 교육에서는 페더럴모듈세종주의 회사 현황 및 혁신 사례에 관한 발표를 시작으로, 공정라인 현장투어와 경희대학교 김홍유 교수의 품질특강의 순으로 이뤄졌다.

시는 이번 교육에 참여한 16개 기업에 중소기업육성자금 가점(5점)을 부여하고 교육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내년도 품질경영 지원사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김태선기자

한남대 베트남유학생들 교내 카페 창업

베트남 원두와 연유를 사용해 전통 연유커피 제공



대학생 창업의 열기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퍼지고 있다.

5일 한남대(총장 이덕훈)에 따르면, 이 학교 베트남 유학생들이 교내에 카페를 창업해 인기를 끌고 있다.

베트남 유학생 판반선(2학년), 뷔티탄(3학년), 응웬반포(4학년), 이상 경영학과, 응웬반미(4학년), 기독교학과 등 4명은 교내 간호학과 강의동 안에 카페 '쏘어다'(베트남어로 연유를 뜻함)를

열고 운영 중이다.

이들은 베트남 부운 메 푸엣 지역의 커피원두와 연유를 혼합한 베트남 전통 연유커피를 제공하며 한남대 구성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카페 운영은 학생 4명이 강의가 없는 시간을 이용해 교대무로 하고 있다. 이 학생들은 공부와 마치고 베트남에 돌아 가면 카페를 창업할 꿈을 갖고, 한남대에서 창업과 경영의 노하우를 배우는 중이다. 김정환기자

공주-세종 상생협력 '삶의 질 높다'

4일 김정섭-이춘희 시장 현장 정책간담회... 20개 협력과제 점검

공주시시장 김정섭과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지난 8월 28일 맺은 상생협력 협약에서 합의한 4개 분야 20개 협력과제의 적극적 추진을 통해 양 도시의 공동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 확충에 나섰다.

지난 4일 공주시청 중회의실에서 김정섭 공주시시장과 이춘희 세종시장이 참여한 가운데 첫 번째 정책간담회를 열고, 공주-세종 간 상생협력 추진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28일 맺은 상생협력 협약 당시 추진하기로 한 4개 분야 20개 협력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로, 공주시의 초청으로 마련됐다.

이날 양 시장은 4개 분야 20개 협력과제의 추진일정 및 계획을 토대로 과제이행 체계를 점검했는데, 전체 협력과제 가운데 정기 정책간담회 추진, 공무원 체육·문화행사 교류, 구제역시 유입방지를 위한 협조 체계 구축 등 대부분이 당초 계획

에 따라 순조롭게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에서도 유해야생동물 자율구제단 상생운영, 재난위험지역 CCTV 정보 공유, 읍면동 자매결연 등은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며 양 도시 시민 안전 확보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여기에 관광시설 이용요금 할인 사업도 자료 조사를 마치고 시행을 앞두고 두고 있어 조만간 두 도시의 시민들이 혜택을 직접 체감할

수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섭 공주시장은 "공주-세종 두 도시가 공동생활권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상생협력은 필연적"이라며, "도시재생사업 같은 중요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두 도시의 인적, 물적 자원과 경험을 잘 공유 활용토록 함으로서 공주-세종 양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대전시티즌, 선수선발

공개테스트 실시

대전시티즌이 선수 선발 공개 테스트를 진행한다. 이번 공개 테스트는 프로 선수를 꿈꾸는 이들에게 도전과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선수 선발 시스템 정착을 위해 마련되었다.

만 18세 이상, 한국프로축구 연맹 및 대한축구협회 선수 등록결격 사유가 없는 자는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1차 서류심사를 거쳐, 통과자에 한해 2차 실기 테스트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신청서 접수기간은 12월 5일(수) ~ 12월 14일(금) 17:00까지이며, 방문 또는 이메일(jangshdir@ddc.co.kr)로 접수 가능하다.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및 세부사항은 대전시티즌 공식 홈페이지(http://www.ddc.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공개테스트 관련 문의사항은 대전시티즌 사무국 선수단 운영팀(042-824-2002)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정환기자



대전시, 2019년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12월 3일부터 주민등록거주지 동 주민센터 통해 사전신청 가능

대전시는 완화된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12월 3일부터 주민등록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수급자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완화되는 대상은 부양의무자 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연금 수급자, 20세 이하의 1~3급 중증장애인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수급신청자가 만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및 시설보호(보호종료) 아동인 경우에도 이에 해당된다.

대전시 명호중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실제 생활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로 인해 보호를 받지 못했던

2,300여명이 추가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탈락·중지되었던 대상자 중 급여지원 가능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민등록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영호기자

농어촌공사 당진지사, 가뭄극복 위한 물관리 현장설명회

정비·준설 및 농업기반시설 일제 점검 영농급수에 만전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지사장 한광석)는 지난 4일 대강당에서 어기구 국회의원, 마을이장단, 농업인 및 수리시설감시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물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2018년 물관리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어기구 국회의원은 '농업정책 방향과 농업인의 상생방안'이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지역과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조했다며 이를 위해 수질문제, 토양문제, 대기질문제의 해결이 시급함을 주장했다.

산동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 아산-삼교 수계연결사업 등의 예산은 물론 당진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예산확보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설명했으며, 또한 쌀소비 감소와 쌀값 하락으로 농업·농민이 위기이나 쌀중심농업에서 농업의 다변화, 고품질 생산으로 적극적 변화를 유도해 농업경쟁력을 갖추자고 제안했다.

당진지사는 금년도 영농급수를 위해 급관 노후 용배수로 정비 및 토사준설을 지속적으로 실시했고 가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삼교호 용수를 활용해 대호호에 양수차량을 실시했으며, 또한 담수호, 저수지, 양배수장, 취입부 등 104개 농업기반시설물에 대해 영농기전 일제 점검을 완료하고 18555ha 농경지에 농업용수 공급을 안정적으로 실시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아산시 '2018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사업' 공모 선정

(주)영광YKMC · (주)삼아인터내셔널 · (주)엘케이모터스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충청남도 공모사업인 「2018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사업」에 공모해 3개 기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주)영광 YKMC, (주)삼아인터내셔널, (주)엘케이모터스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어기구 국회의원은 '농업정책 방향과 농업인의 상생방안'이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지역과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조했다며 이를 위해 수질문제, 토양문제, 대기질문제의 해결이 시급함을 주장했다.

2천만원의 근로환경개선금과 인증서가 수여되고, 인증 후 3년간 지방세 관련 서면조사 및 직접조사가 면제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지난 2017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사업에는 아산시 관내의 2개 기업이 (주)세진이치비, (주)에이비테크놀러지 선정돼 구내식당 시설개선 등 근로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식품대전 그 제품, 우체국쇼핑몰에서 다시 만나요"

at, 대한민국식품대전 우수상품 기획전 우체국쇼핑몰에 오픈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대한민국식품대전 참가기업의 지속적인 판로 개척을 위해 우체국 쇼핑몰에 Korea

Food Show 우수상품 기획전'을 지난 3일 개설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0월 성황리에 개최됐던 대한민국식품대전 후 소비자들의 제

품에 대한 재구매 의향은 높으나 기업의 브랜드인지도가 낮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업체들과의 상생을 목적으로 기획했다.

참신한 아이디어로 이제 막 식품산업계에 발을 들여놓은 청년 스타트업기업들의 제품부터 우리 농산물을 활용해 건강하게 생산한 다양한 가공식품까지 약 200여 상품이 할인쿠폰 제공 등의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소비자를 만나게 된다.

at 관계자는 "대한민국식품대전을 통해서 선보인 우수한 중소식품기업의 제품이 이번 기획전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소비자에게 어필하고, 소비자는 값싸고 질 좋은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백석문화대, 대전·세종·충청지역

'전문대학총장협의회' 개최



백석문화대학교(총장 장종현)는 5일 교내 본부동 12층 회의실에서 대전·세종·충청지역 전문대학 총장협의회(이하 총장협의회) 제99차 정기총회를 성공리에 개최했다.

한국영상대, 혜전대가 참가했다. 본격적인 회의 전 백석문화대 장종현 총장은 환영 인사말을 전했다. 대학 주요 보직교수를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날 총장협의회에서는 행사 주관대학인 백석문화대를 비롯해 대전·세종·충청지역 전문대학 14개교(강동대, 대덕대, 대전과학기술대, 대전보건대, 신성대, 아사대, 연암대, 우송정보대, 충남도립대, 충북도립대, 충청대,

총장협의회에서는 행사 주관대학인 백석문화대를 비롯해 대전·세종·충청지역 전문대학 현안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교내 글로벌의식관, 山史현대시100년관, 보리생명미술관, 기독교박물관, 백석역사관 등을 방문하는 시간이 마련되기도 했다.

김정환기자

2018 청양농업최고경영자 과정 수료식

청양군, 스마트농업 및 지역공동체 리더 30명 양성



청양군(군수 김돈관)이 농업 실무역량과 이론적 지식을 겸비한 신농업 인재육성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경영구조 개선을 위해 추진한 2018 청양농업최고경영자과정에서 30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

이번 청양농업최고경영자 과정은 스마트농업 및 지역공동체 리더 육성을 위해 영농기인 5월과 9월 휴강을 제외하고 총 25주치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돼 지난 4일 청양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수료식이 열렸다.

청양농업최고경영자 과정은 2014년부터 지역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고급 인재 육성을 위해 최신 농업기술, 농산물 유통, 가

공, 마케팅 등 농업 기술 및 경영 전반에 대해 단계별 전문교육이 이뤄졌다.

올해 최고경영자과정은 지역 농업, 농촌의 자원과 환경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문제해결 능력 및 지역 공동체 리더가 갖추어야 할 의소스통 및 조정 능력 등 농업분야 최고경영자에게 요구되는 리더십 강화 학습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특히, 시대적 화두로 대두된 4차 산업혁명 및 스마트농업의 현 단계 기술, 성공사례를 현장교육과 실습 중심으로 운영됐다.

청양=정상범기자



공주소방서, 겨울철 축사시설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전자통신연구원, 대전지역에 전기매트·김장김치 등 연이은 나눔 진행



한산초, 사랑나눔 바자회 및 앙상블 공연 개최



한국자유총연맹 대전중구지회

통일대비 안보현장 견학 실시

이기에 한국자유총연맹 대전중구지회장과 회원 45명은 지난 4일 경기도 평택 제2해군함대에 위치한 '통일대비 안보현장 견학'을 통해...

주방화재 K급 소화기 비치 홍보

청양소방서, 주방용 K급 소화기 의무적 비치
청양소방서(서장 이일용)는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등의 주방에 주방용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할 것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소중한 아이들 담배로부터 지켜주세요”

31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선 10미터 이내 금연구역 시행

오는 31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되는 구역)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진법' 제9조 제6항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연규역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보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부속할 예정이다. 각 자치구는 오는 30일까지 집중예고를 실시한 뒤 31일부터 금연규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특히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번 금연규역 시행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영호기자

동구, 6일부터 라돈측정기 32대 무료 대여서비스

동 주민센터에서 대여 가능... 주민불안 해소 기대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6일부터 동 주민센터를 통해 라돈 측정기 무료 대여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측정방법은 창문과 방문을 모두 닫고 벽, 창문, 바닥으로부터 50c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측정하면 된다.

선 기체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흡연과 함께 폐암 발병의 주요 원인이 되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김태선기자

예산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부과

주·정차하거나 진입 가로막을 경우 최고 100만원 과태료

예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공중주행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정차를 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을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방해행위의 기준으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가 해당되며, 이를 위반 할 시에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산=양영명기자

당진소방서, 임산부 이송 예약제 구급서비스 추진

읍·면의 농어촌 지역 임산부 대상



당진소방서가 2018년 12월부터 읍·면의 농어촌 지역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산부 이송 예약제 119구급서비스를 추진한다.

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는 산부인과가 없는 읍·면의 농어촌 지역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산부 이송 예약제 119구급서비스를 추진한다.

당진=최근수기자

탕정새마을금고, 고객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교실' 운영

새마을금고 회원 및 일반 주민 약 200여명의 참여 속 진행



아산 탕정새마을금고이사장 이종언은 지난 3일, 아산시 최초로 주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교실"을 운영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진지한 분위기 속에 이루어졌다. MG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MG희망나눔 금융교실 강사과정 수료한 신우새마을금고 최선미 차장이 강사로 나서 보이스피싱의 정의, 보이스피싱 예방 10명령, 피해 구제 신청방법, 금융사기 예방방법

아산=리량주기자

Advertisement for a fire safety training course with contact information (042)538-3030.

서산소방서, 재난약자시설 현지방문

음암면 소재 재난약자시설인 서림복지원 방문



서산소방서(서장 류석윤)에서 지난 4일 서산시 음암면 소재 재난약자시설인 서림복지원을 현지방문했다.

음암면 소재 재난약자시설인 서림복지원 방문
서산소방서에서는 이날 관계자를 대상으로 ▲겨울철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유사 화재발생 사례 설명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훈련 협조 ▲소방시설 관리 및 대피 계획서 작성 ▲인명대피용 물품 비치 등을 강조 했다.

서산=김정환기자

세종시, 인사혁신 최우수 지자체 뽑혔다

2018 지방인사혁신 경진대회...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등



세종시(시장 이춘화)가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와 희망인사시스템 정착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전국에서 인사혁신을 가장 잘한 지방자치단체에 뽑혔다.

최종 발표에서 세종시는 지방정부시대를 맞이하는 '참·주·인 인사(시민의 시청 참여, 직원의 변화 주도, 성과에는 인센티브)'를 주제로 우수사례를 발표해 평가되는 물론, 현장투표에서 최고점수를 얻었다.

세종시(시장 이춘화)가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와 희망인사시스템 정착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전국에서 인사혁신을 가장 잘한 지방자치단체에 뽑혔다.

이외에도 시는 시장-직원과의 소통마당, 인사고공의 시스템 관리, 중앙부처와의 인적교류를 통한 협력강화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조직의 안정과 인사혁신을 동시에 달성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세종=김태선기자

대전교육청, 2018 유아교육 행복한마당

12월 6일부터 7일까지, 교육정책 운영사례 및 유아교육자료 전시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12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대전 지역 교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2018 대전유아교육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유아교육 행복한마당은 2018년 유아교육정책사업에 공모·선정되어 운영한 유치원과 교사연구회의 교육성과를 한자리에 모아 공유하는 자리이며, 자료 전시와 특강, 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대전 지역 교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2018 대전유아교육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유아교육 행복한마당은 2018년 유아교육정책사업에 공모·선정되어 운영한 유치원과 교사연구회의 교육성과를 한자리에 모아 공유하는 자리이며, 자료 전시와 특강, 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6일 15:00, '이야기, 놀이와 만나다'(7일 15:00) 등 특강이 진행되며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비한 유아교육의 방향과 방법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대전교육청 설동호 교육감은 "이번 유아교육 행복한마당을 통해 유아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미래 인재의 핵심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방법과 방향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서산교육지원청, 소통 화합 한마당 개최

화합과 소통, 친목 도모하고 서산교육의 발전 목적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렬)이 4일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산교육지원청이 주최하고 서산시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가 주관하는 제2회 서산교육가족 어울림한마당을 개최 했다.

서산교육가족의 화합과 소통, 친목을 도모하고 서산교육의 발전을 목적으로 실시한 이번 행사는 대산중 한외오케스트라 사전공연을 시작으로 각 학교 학부모, 교직원으로 구성된 총 18팀의 노래 및 장기자랑이 이어져 교육가족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맹청호시장을 비롯해 관내 기관장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었으며 이종렬 교육장은 이번 "어울림한마당"이 서산 교육가족 모두가 하나로 어우러져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기대하고 전했다.

서산=김정환기자

2018 예산 Wee프로젝트 워크숍 실시

Wee프로젝트 전문상담(교)사와 상담지원봉사자 등 39명 참여



예산교육지원청 Wee센터는 지난 4일 전라북도 전주일원에서 Wee프로젝트 전문상담(교)사와 상담지원봉사자 등 39명이 참여하는 '2018년 예산 Wee프로젝트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은 Wee프로젝트 선진지를 견학해 Wee프로젝트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주일원에서의 문화체험을 통해 학생 상담 프로그램과 체력처를 발굴하며 상담자 소진예방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획됐다.

이번 선진지 견학으로 방문한 전주교육지원청 덕진 Wee센터는 2009년 3월에 개소하여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폭력 전문상담사가 근무하며 학교폭력 사안을 전담으로 처리하는 등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는 Wee센터 중 한 곳으로 센터를 둘러보고 운영에서 본받을 점을 찾을 수 있었다.

예산=양성업기자

"우리아이 진로! 학부모 공감 진로콘서트"

세종시교육청 "자녀 진로교육, 함께 이야기해요"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에서 관내 학부모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부와 공동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공감 진로콘서트(이하 진로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진로콘서트는 '우리아이 진로! 함께 이야기해요'를 주제로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진로교육의 방향을 학부모와 진로교육 전문가들이 함께 찾아보고

세종=김대선기자



2018 하반기 식품기업 취업전략이 한 자리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청년일자리 창출에 발맞추어 청년의 농식품 분야 일자리 네트워크 강화 및 취업지원을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2018 식품산업 청년 취업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세종시교육청,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교육

주요 법령 및 어린이 행동 특성, 주요 사고 사례 안내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5일 세종시교육청 2층 대강당에서 학원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교육 대상자와 유치원, 학교 통학차량 관계자 등 110여 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세종시교육청 소속 유치·초·특수학교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와 학원 통학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 등 어린이 통학차량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도로교통공단의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어린이 통학버스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교통안전에 대한 어린이 행동 특성 및 주요 사고 사례 등에 대하여 교육했다.

서한택 행정과장은 "이번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관계자의 학생 통학 안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관내 통학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학부모와 학생이 안심하고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대선기자

충남교육청, 다양한 진로교육 지원 강화

충남도교육청 초등학교장, 중등 진로전담교사 진로교육 연수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5일까지 3일간 부여롯데리조트에서 초등학교장 193명, 중·고등학교 진로전담교사 170여명을 대상으로 '2018 학교관리자 및 중등 진로전담교사 심화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최근 국가의 진로교육정책과 이슈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내실 있는 진로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연수강좌 선택 수강과 토론, 진로 키워드 특강, 진로교육 컨퍼런스 및 토크콘서트 등의 행사를 통해 현장 교사들의 관심사를 스스로 찾아내는 자문자답형 연수로 기획됐다.

연수의 주요내용은 ▲국가 진로교육정책의 이해 ▲초등학생 진로심리검사의 이해와 적용 ▲토크콘서트(미래, 진로, 창업을 말한다!) ▲컨퍼런스(학교 진로교육 진단&장조) ▲미래직업 먹거리 ▲고교학점제 ▲협력 및 네트워크 ▲대학 아닌 직업 등으로 운영됐다.

충남도교육청 이병도 학교정책과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에서 추진하는 진로교육이 더욱 발전한 모습으로 운영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연수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선문대, 충남강소기업CEO아카데미 수료식

제 9기 과정, 남북경제협력력 통한 신 성장 동력 발굴 주제



선문대학교(총장 황선조)는 지난 4일, 선문대 국제회의실에서 선문대 LINC+사업단(단장 윤기용)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남지역본부(본부장 배동식)가 공동 주관하는 제9기 충남강소기업CEO아카데미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수료식은 선문대 구자분 부총장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정진수 부이사장, 충남지역본부 배동식 본부장, 충남청년창업사관학교 김필섭 교장이 참석했다.

45명의 충남지역 소재 중소기업CEO가 참여한 제9기 과정은 지난 9월 11일부터 매주 화요일 '남북경제협력시대 CEO리더십'과 기업 간 사업협력 전략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주로 남북경제협력과 관련해 신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특강과 기업 간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마지막 11차 교육은 수료식에 앞서 정진수 부이사장의 '중소기업 미래 생존 전략'이란 주제의 특강으로 진행됐다.

아산=리영주기자

부여교육지원청, 다문화 및 일반가정 초·중 취학전 입학설명회 성료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철)은 5일 다문화 및 일반가정 학부모를 위한 초등학교, 중학교 취학전 입학설명회를 부여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우리 아이 학교 보내기'라는 주제로 실시했다.



공주고, 운동장 현대화 사업 준공식

공주고(교장 조종석)는 지난 3일 김정섭 공주시장, 박병수 공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도 및 시교육청 관계자, 인근 학교장, 야구부 학부모와 교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동장 현대화사업 준공식을 가졌다.

이 운동장은 충청남도교육청과 공주시의 지원으로 총 사업비 21억여 원을 들여 준공됐으며, 야구부만을 위한 야구장이 아닌 학교 구성원 모두를 위한 운동장이라는 것이 학교의 설명이다.

그동안 공주고는 박찬호, 손혁, 조동화 선수들을 배출한 야구 명문 고등학교의 명성에 걸맞지 않는 열악한 마사토 야구장과, 흙먼지가 날리고 비가 오면 물이 고이는 운동장으로 인해 원활한 체육 수업이 곤란했는데, 이번 사업으로 인해 물 빠짐이 수월하고 쾌적한 인조잔디 운동장이 완공되어 교육공동체의 기대를 얻고 있는 것.

조종석 교장은 축사를 통해 "야구부만을 위한 야구장이 아니라 우리 학교의 모든 학생들을 위한 운동장을 만들고자 많은 고민을 했다"며, "축구, 풋살 등 다양한 스포츠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으니, 학생들 모두 체육시간 및 점심, 방과 후 시간 등을 활용해 건강한 심신을 기꾸는데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공주=정성범기자



마당극으로 펼친 아름다운 우리 인생

한국마사회 '대전문화공감센터' 지원으로 문화 나눔마당

정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구장완은 5일 (사)마당극대 '우금치'의 '청아 청아, 내 딸 청아' 공연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장종태 서구청장과 한국마사회 대전문화공감센터 장영환 센터장, 대전시의회 이광복 의원, 서구의회 전명자, 조성호, 조규식, 서지원 의원, 정림동행정복지센터 이래권 동장을 비롯한 내빈과 마을 어르신 500여명이 함께 했다.

마당극 공연은 '한국마사회 대전문화공감센터'의 나눔기부금 지원 사업으로 추진됐다. 한국마사회는 경마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나눔기부금 사업은 지역사회 문화소외계층의 어르신들에게 문화 나눔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신명나는 축제 한마당이 됐다. 공연을 관람한 마을 어르신들은 마당극 주인공의 삶을 따라 탄식과 기쁨의 눈물도 함께 흘렸다.

송병배기자

• 특 정 •

힐링 워크숍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6일, 오후 1시 자연치유센터(세종시 금남면 소재)에서 열리는 「미올학교 운영자 역량강화 및 힐링 워크숍」에 참석.

예산군 대흥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독거가구에 이·미용봉사 펼쳐

예산군 대흥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임덕규, 민간위원장 윤용배)가 지난 4일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과 장애인 10가구를 방문하여 이·미용봉사를 펼쳤다.

이번 봉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중 이·미용 기술이 있는 회원 2명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졌으며 10명의 대상자에게는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10만 원 상당의 농협상품권도 전달했다.

이날 이·미용 서비스를 받은 손지리의 한 어르신은 “7년 동안 제대로 머리를 잘라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찾아와 머리를 잘라주고 말벗을 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흥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지난 의중은형제 축제에서 차와 군고구마를 팔아 260여 만 원을 마련했고 목표액에 다다른 판매 취약가구의 주거개선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예산=양성업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착한가격업소 6곳 신규 추가지정

세종시, 가격인상 억제분위기 확산에 따른 지역물가 안정 기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 제공을 약속하는 착한가격업소를 6곳 신규로 발급해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세종시 내 착한가격업소는 의식업 25곳 이·미용 및 세탁업 등 기타 개인서비스업 4곳 등 총 29곳으로 늘게 됐다.

시는 5일 신규 착한가격업소 지정 업소에서 지정서를 교부하고

착한가격업소임을 알리는 외부 부착식 표찰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물가상승 억제와 개인서비스 안정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관리하고 있는 우수업소를 말한다.

시는 올해 신도심 지역의 경제 안정 도모하고자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 동안 총 8개 업

소의 신청을 받아 이 가운데 6개 업소를 새로 지정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업소는 주관부서인 시 경제정책과와 지역주민단체 물가모니터 요원의 사전 점검과 현지실사 평가를 통해 가격, 위생·청결, 품질 서비스, 공공성 등에서 적격성 여부를 검증받았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대출

금리 및 보증수수료 감면, 대출신청 시 0.25%P 범위 내에서 금리 추가 감면, 모범납제자 가산점 부여, 종량제 봉투 지원, 상수도 요금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착한가격업소는 시장 홈페이지 맛집/숙박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선 기자

충남도 학교급식에 충남 친환경농산물 공급 확대

학교급식지원센터 공급 생산·관리 기본계획 수립

충남도가 학교급식에 대한 도내 생산 친환경농산물 확대를 위해 공급 체계를 계획적이고 광역적으로 바꾼다.

도는 ‘학교급식지원센터 공급 생산·관리 기본계획’과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 추진 계획’을 수립,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런 계획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중간조직에서 공급하던 지역·친환경 농산물 공급량 한계를 개선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을 위해 마련했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도내 생산 친환경농산물 공급확장성 부족 △중간조직의 타시·도 농산물 유통 △친환경농산물 광역 생산자단체 갈등 조정 미흡 등을 극복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도는 우선 지난해부터 2년 간 학교급식에 사용된 농산물 전체 사용량을 도 학교급식지

원시스템 등을 활용해 조사한다.

또 학교급식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공급 희망 생산자지를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별로 모집, 출하조작을 구성한다.

이어 연간 학교급식 농산물 소비량과 공급 시 생산자가 제출한 생산계획을 감안해 시·군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을 참조해 광역 생산·관리 계획을 세운다.

내년 1월에는 시·군 출하조직과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 간 약정을 체결한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모집 대상은 도내 주소를 둔 친환경농산물(인증) 생산농가로, 100% 친환경농산물 생산·공급이 가능하고, 품질 및 안전성 관리 기준을 준수해 생산·공급이 가능해야 한다.

공모 선정 생산농가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친환경농산물 출하조직으로 자동 편입돼 생산·관리 계획에 참여하게 되며,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납품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공모 기간은 오는 7일까지다.

박병희 도 농정국장은 “이번 계획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지역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 구축과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 강화, 학교급식을 통한 학생 건강 증진, 농가 판로 지원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 기반 구축과 학교 현장의 친환경농산물 소비, 지역 농가 소득 확대 등을 위해 민선7기 공약사업 중 하나인 ‘친환경 급식 현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생산·관리 계획에 따라 공급하는 친환경농산물 가격에서 일반 농산물 가격을 뺀 차액을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일선 학교에서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를 부담 없이 사용하는 기반 조성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구 기자

U-18 YESAN FC 송민혁·정규현 독일 분데스리가 3부 진출 쾌거



과 사랑의 합작품이다.

그동안의 과정을 살펴보면 청소년 축구클럽인 예산FC U-18(감독 전현석) 팀은 2017년 6월 독일 3부 리그 FSV프랑크푸르트와 상호 교류협약을 체결하고 FSV프랑크푸르트 유소년 팀의 야인 알렉산더 총감독이 예산군을 방문해 황선봉 군수와 면담을 갖고 예산FC U-18 축구클럽 선수들의 독일 진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올 2월 예산FC U-18 축구클럽 선수들 전체가 독일로 건너가 경기 및 테스트를 통해 최종적으로 송민혁 선수와 정규현 선수가 SV Wehen Wiesbaden(독일 분데스리가 3부) 팀에 동반 입단이라는 눈부신 성과를 얻게 됐다.

예산FC U-18은 그동안 타 지역으로 유출되던 축구 유망주들을 예산 지역에서 육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2016년 11월 창단한 팀으로 삼고고등학교와 협력관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예산중학교 축구부 출신 18명이 활동하고 있다.

전현석 예산FC U-18팀 감독은 “그동안 독일 분데스리가 진출이라는 막대한 꿈을 묵묵히 믿고 따라온 선수들의 노력에 힘입어 밝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젊은 선수들의 축구 잠재력을 꽃피울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육성해 예산군을 빛낼 수 있는 선수를 배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963년에 출범한 분데스리가는 1980년대에 차범근이 차범 신드롬을 일으키며 우리 국민들에게도 익숙한 독일의 프로축구 리그로써 영국 프리미어 리그, 이탈리아 세리아 A,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등과 함께 유럽축구 4대 리그 중 하나이다.

예산=양성업기자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대통령표창 수상 영예

충남도가 5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에서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8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은 자원봉사 활성화 및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공적이 있는 자원봉사자, 기업, 단체, 지방자치단체의 후보자 추천과 공적내용 현지실사, 공개검증 등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충남도는 서해안유류사고 극복 10주년 기념행사와 연계한 전국 자원봉사 컨퍼런스 성공 개최와 전국동행평가 ‘가’등급을 달성한 공로가 인정됐다.

특히 도 재난안전자원봉사단 출범은 물론, 읍·면·동 자원봉사 거점센터 설치·운영 등이 대통령표창을 수상하는데 주요하게 작용했다.

이밖에 공직자 자원봉사활동 추진 등으로 도내 16개 자원봉사센터와 협력,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을 발굴하고 지원한 공적이 인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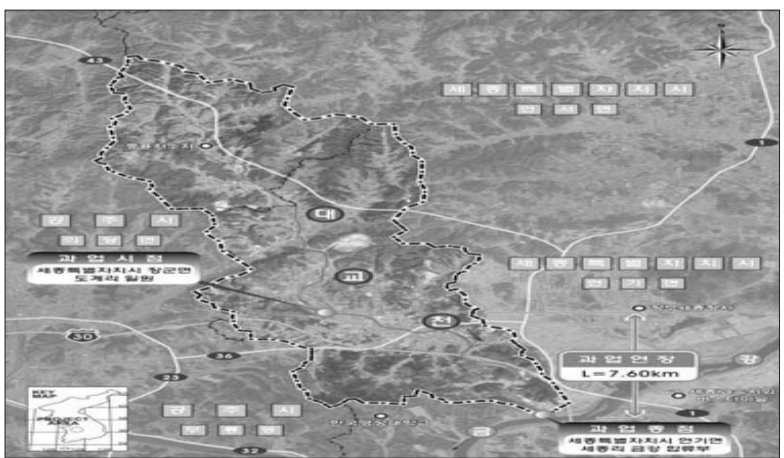
도 관계관은 “대통령표창 수상은 도내 52만 자원봉사자들의 노력과 도와 도 자원봉사센터 중심의 자원봉사 활성화 제도운영의 결과”라며 “앞으로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활동과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대통령표창(개인) 1점, 국무총리표창(개인) 4점, 행정안전부장관(개인·단체) 10점에 선정되는 영예도 안았다.

김성구 기자

대교천 재해예방사업 내년 상반기 사업 착수

세종리~도계리 7.6km 홍수범람·침수피해 예방 추진



세종시(시장 이춘희)연기면 세종 리 금강 합류부에서 장군면 도계리

일원 7.6km 구간의 홍수범람 및 침수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대교천 재해예방사업’이 내년 상반기 본격 추진된다.

시는 5일 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 제4차 세종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대교천 재해예방사업의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대교천 재해예방사업은 총사업비 382억 원을 투입, 연기면 세종리 금강 합류부에서 장군면 도계리 일원 7.6km 구간에 대해 홍수범람 및 침수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하천재해예방사업이다.

시는 지난달 21일 대교천 재해에

방사업의 보상설명회를 열고, 편입토지 소유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상절차, 토지분할, 감정평가 등에 대하여 설명한 바 있다.

시는 이번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조달청에 계약 의뢰해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편입토지 보상과 관련해서는 보상업무 위탁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심대조사를 실시하고 편입구역에 경계막목을 설치하고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대표자를 선출해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 보상계획을 공고할 계획이다.

김태선 기자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세종시 연서면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금지 교육

세종시 연서면(면장 김성환)이 5일 면 직원, 산불진화대, 산불감시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서면 마을 곳곳을 돌며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산림 인접지 등 산불발생 취약지 및 마을회관을 직접 방문해 실시했으며, 어르신을 대상으로는 ‘발두

령, 영농부산물 소각금지 등 산불예방 교육도 병행 실시했다.

김성환 연서면장은 “겨울철 건조한 기후에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발생할 수 있다”며 “연서면에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기 위해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모든 것을 새롭게 All New 하이트

대한민국 No.1 셀링 비어

80년 맥주 제조 노하우

EXTRA DRINKABILITY

CHEERS! KOREA

동정

송년행사



오세현 아산시장은 6일 오후 6시 은양그랜드 호텔에서 열리는 2018 아산 시기업인 워크숍 및 송년행사에 참석.

당진시 체육회 임시총회



김홍장 당진시장은 6일 오전 10시 유림회관에서 열리는 도덕성 회복 윤리 선양대회에 참석, 오후 5시 실악웨딩홀에서 열리는 당진시 체육회 임시총회에 참석.

어르신건강센터 준공식



가세로 태안군수는 6일 오후 2시에 보건의료원 어르신건강센터에서 열리는 '어르신건강센터 준공식'에 참석.

최종선발전



김동곤 청양군수는 6일 오전 9시 군수실에서 독거노인 털목どり 및 천연세계 기탁식을 가진 후, 오후 3시 군민체육관에서 개최되는 2018 복싱 국가대표 최종선발전에서 참석.

청소년 문화의 집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

당진시, 청소년활동 안전사업 수련활동 인증제 운영 우수

당진 청소년 문화의 집이 지난 4일 천안에 위치한 국립중앙청소년에서 열린 '2018년 청소년활동 안전사업 수련활동 인증제 운영기관 및 운영자 시상식'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기관과 단체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련활동을 실시할 때 프로그램의 참여 안전성을 도모하고 공공성과 유익성이 보장된 프로그램을 국가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인증제도다. 여가부에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는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적으로

4,159건의 프로그램이 인증될 정도로 참여자의 호응이 높다. 당진 청소년 문화의 집의 경우 에코그린, 하반기 토요체험, 백제문화재 탐방 등의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당진시 청소년들을 위한 인증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태안군 '아이디어 번뜩' 정책연구단 발표회 열려

창의적 정책발굴로 관심끌어 · 향후 지역발전 위한정책 활용기대



태안군이 혁신적 정책과제 발굴 및 직원역량강화를 위해 운영한 '태안군 정책연구단'이 결실을 맺었다.

군은 지난 4일 군청 대강당에서 가세로 군수를 비롯, 군 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안군 정책연구단 연구과제 발표회'를 열었다. '태안군 정책연구단'은 지난 3월 태안군 소속 직원 21명으로 구성돼 목원대학교 행정학과 권선필 교수의 지도 아래 정책연구 모임을 갖고 토론을 통해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 · 연구해왔다. 특히 연구단원의 부서와 직렬을 감안해 행정혁신, 문화관광, 지역개발(A·B팀), 교육복지 등 5개 분과로 나뉘어 각자의 전문성을 살렸다. 이날 발표회에서 정책연구단은 ▲블록체인 전자화폐 도입 ▲투어패스를 활용한 관광예 증가 방안 ▲탄리포 재생 및 재개발 사업 추진 ▲가은누리 조성 ▲독거노인 홀

클리닝 솔루션 사업 등 약 8개월에 걸친 연구 결과를 발표했으며 참신한 아이디어로 큰 호응을 받았다. 군은 연구단 자체평가와 전 직원 내부평가, 외부 전문가 평가를 통해 최우수, 우수, 장려, 노력상 등을 시상해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향후 정책연구단 참여를 독려했다. 군은 이번 정책연구단 운영이 공직자의 능동성을 키우고 업무역량 및 전문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정책연구단의 연구결과가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활용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정책연구단이 보여준 창의적인 발상과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제시와 토론을 통해 끊임없는 정책연구로 군정을 혁신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태안 김정하기자

당진지역 영양·위생관리 우수 어린이집 시상

당진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우수 어린이 급식소 선정



당진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김용문)는 지난 4일 오

후 1시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2019년 사업계획 안내 및 2018년 우수 어린이 급식소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당진시학교급식지원센터 이운호 단장, 해원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지연 단장을 비롯해 당진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역 아동센터 등 센터에 등록된 기관과 미등록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2018년 우수 어린이 급식소 시상식에서는 센터 사업 참여도와 영양·위생관리 수준을 모두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상 4개 기관과 우수기관 9곳을 선정했다. 심사결과 최우수상은 ▲금원어린이집 ▲대림 어린이집 ▲에인 어린이

집 ▲해나루어린이집이 차지했다. 또한 우수상은 ▲기지시 어린이집 ▲도담어린이집 ▲들꽃어린이집 ▲롯데어린이집 ▲성모유치원 ▲예수초등학교지역아동센터 ▲지혜울 어린이집 ▲토마토어린이집 ▲포근한 어린이집이 수상했다. 전체 수상기관 중 종합점수 1위를 차지한 금원어린이집에는 당진시 지정 표창이 전달됐으며,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기관의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당진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내년도 센터 사업 내용과 운영 방침을 공유하고 한 해 동안 어린이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 준 기관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탕정면 원룸 · 상가 대책위원회 탕정면에 성금 기탁

아산시 탕정면 원룸 · 상가 대책위원회(위원장 이상복)가 지난 4일, 아산시 탕정면 행정복지센터명장 심홍섭에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지원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위원장을 대표로 성금 2,245,300원을 기탁했다. 2006년 57명으로 설립 · 운영돼 지역사회 복지발전을 위해서도 힘써온 탕정면 원룸 · 상가 대책 위원회는 이번에 회원들이 지금까지 모은 활동비를 성금으로

전달하며 지역사회의 훈훈함을 주고 있다. 이 성금은 탕정면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실현 일환으로 행복키움추진단을 통해 관내 저소득층 및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세대의 지원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심홍섭 탕정면장은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기부하신 성금은 관내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청양군 2019년 장애인일자리아사업 참여자 모집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위해 오는 14일까지 2019년 장애인일자리아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신청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으로서 모집유형은 장애인 일반형일자리아(전일제, 시간제)와 장애인복지일자리아로 주민등록주소지 읍 · 면사무소에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에 대하여는 공개모집을 거쳐 선발기준표에 의한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을 하게 되며, 장애인일자리아사업 참여자로 선정되면 관내 읍 · 면사무소, 공공기관, 사회 복지시설 등에 배치돼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12개월 동안 근무하게 된다.

일반형 일자리아 참여자는 행정도우미, 전달지원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지원 보조로, 복지일자리아 참여자는 우편물분류, 장애인주차구역 제도활동, 환경정리요원으로 근무한다. 근로조건은 일반형일자리아(전일제)의 경우 근무시간은 주 40시간, 일반형일자리아(시간제)의 경우 주 20시간을 근무하게 된다.

급여는 전일제는 4대 보험 개인 부담금을 포함해 174만5150원, 시간제는 87만2580원이다. 복지일자리아의 경우 주 14시간, 월 56시간을 근무하게 되며, 고용 · 산재보험을 포함해 46만7600원의 보수를 받게 된다. 장애인 일자리아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 주민복지실 장애인복지팀(940-2103)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청양=정성범기자

우리/동/네

농촌 주거환경개선에 나선다

청양군, 농촌주택개량 용자 ·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2019년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희망지붕 오는 12월 말까지 접수한다. 군은 노후 · 불량한 농촌주택 정비(철거) 및 신규주택 건축수요에 대응하고 농촌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주택개량사업 70동, 농촌빈집정비(철거)사업 40동,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사업 64동 총 174동에 대해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농촌주택개량 용자금 지원 금액은 최대 2억원으로, 대출기간은 20년이며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월은 고정이자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고, 변동금리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이 정하는 대출금리가 적용되고 고정금리는 연 2%다. 용자금을 지원받아 개량하는 주택면적은 최대 150㎡까지며, 주택면적 100㎡ 이하는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5년)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농촌 빈집정비사업은 농촌지역 이농현상으로 1년 이상 방치돼 미관을 저해하는 주거용 건물을 대상으로 철거비용 호당 100만원 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사업은 슬레이트 지붕을 다른 지붕재료로 개량하고자 하는 주택이나 슬레이트 빈집을 철거하고자 하는 주택 등이 해당하며, 1동당 최대 338만원의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위탁대행업체를 선정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게 되므로 신청자에게 직접적인 현금지원은 되지 않으며 또한 빈집정비와 주거용 건물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군은 내년부터 각각의 사업대상자 선정 시 착수일이 빠른 순서로 우선 선발해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으로 조기 추진을 위해 올해 안에 수요량을 파악하고 내년 1월 중 현지조사를 완료, 2월 중에는 대상자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군 건설도시과 김중섭 과장은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주거환경과 정주여건을 개선해 농촌 인구유출을 줄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는 주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 더욱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희망자는 건축물소재지 읍 · 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군 건설도시과 주택팀(940-28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청양=정성범기자

태안군 품목농업인연구회 성과 빛나

활동성과보고 · 품평회 통해 정보교류 및 성과 공유

태안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 창조관에서 지난 4일 가세로 군수와 지역 농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품목 농업인연구회 활동성과보고회'가 개최됐다. 품목농업인연구회협의회 회장 손병배가 주관한 이번 평가회는 소 득향상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품목별 자율학습 활동 · 농산물 품평회 · 활력화사업 등의 성과를 발표, 정보를 교류하고 회원 간 결속을 다지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제3회 품목농업인연구회 활동성과보고회 행사에서는 새 기술 보급 및 품목농업인연구회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4명이 군 수 표창을 받는 등 총 14명이 표창을 받았으며, 관내 26개 품목농업인연구회 중 올해 성과가 우수한 5개 연구회가 실적을 발표해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아울러, 생강연구회, 낙농연구회, 사과 · 배 연구회, 우리음식연구회에서 준비한 생강차, 요구르트, 치즈, 짬뽕, 사과 등에 대한 시 식 품평회가 마련돼 올 한해 품목농업인연구회가 일궈낸 성과를 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손병배 품목농업인연구회협의회 회장은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신속히 대처하고 농업발전과 행복한 농촌만들기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보고회에 참석한 가세로 군수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노동력 부족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농촌융복합산업을 발굴하는 등 군 차원의 지원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하기자



행복하고 따듯한 목면의 연말 청양군 목면(면장 황우원)은 지난 4일 다목적회관에서 김동곤 청양군수를 비롯한 지역주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목면 주민자치위원회 송년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에는 지난 1년간 수감생들이 탐 홀리며 연습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한 공연이 펼쳐져 수감생들은 그동안 배움에 대한 결실을 맺고, 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우리/동네

한파 대비 에너지소외계층 지원 총력

서천군, 방위적인 에너지 복지 지원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올 겨울 극심한 한파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파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등 취약 에너지 복지 실현에 팔을 걷어 붙였다.

군은 에너지 빈곤층의 겨울철 난방비용을 지원하는 한국에너지공단 지원사업, 한국에너지재단의 난방유 지원사업,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연탄보조사업 등 에너지복지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지원하는 등 겨울철 한파 대비 주민 안전 확보에 나섰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경우 노인, 영유아, 장애인 세대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전기,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한다.

지원금액은 1인가구 8만6천원, 2인가구 12만원, 3인 이상 가구에는 14만5천원으로 내년 1월 말까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신청을 받은 난방유 지원사업과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은 각각 서천군 내 수급권자 27세대, 191세대가 지원 대상자로 확정 됐다.

난방유 지원사업은 한 세대 당 내년 2월까지 난방유 구입을 위한 31만원 상당의 카드를 하나은행에서 발급받아 사용 가능하며,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은 각 가정에 31만3천원 상당의 연탄을 지원하는 연탄쿠폰을 배부해준다.

군은 한국에너지공공단과 한국에너지재단, 한국광해관리공단 등 사업 추진 기관의 활발한 업무 교류로 복지 사업 수혜 가정이 치질 없이 모두 혜택을 받아 지역 내 에너지 소외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군 담당자는 "최근 연탄 값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겨울나기가 힘들어짐에 따라 우리 군은 에너지복지사업의 혜택을 지역 주민들이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항읍, 서면 등 서천군 각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에 나서며 전 방위적인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 사업을 펼치며 한파 대비 저소득층 안전 관리 강화에 공헌을 다하고 있다.

서천=김태선기자

제16회 양촌꽃감축제 8일 ‘팡파르’

양촌리 체육공원에서 달달한 꽃감의 향연... 4개분야 34개 프로그램 ‘풍성’

제16회 양촌꽃감축제가 '김빛' 물든 그리움, 정이 물처럼 흐르는 '햇빛촌'을 주제로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논산시 양촌면 양촌리 체육공원에서 달달한 막을 올린다.

올해 16회를 맞아 4개 분야 34개 프로그램이 펼쳐지는 양촌꽃감축제에 방문하면 감 김계 깎기, 꽃 감시 말리 빨기, 송어 잡기, 떡 메치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유명 가수의 공연 등 멋진 겨울 추억을 뽐낼 답이갈 수 있다.

축제 첫날인 8일에는 사물놀이, 난타 등 주민자치프로그램 공연을 시작으로 오후 2시 개막식을 개최



하고 육군군악대공연 및 김성환,

김종하 외 다수 유명가수들의 축하 공연과 개막 불꽃쇼가 축제의 서막을 알린다.

9일에는 제5회 청소년 맨스경연대회, 퓨전난타, 라이브통기타공연, 각설이(버드리)공연 및 진성·박서진 등 초청가수가 출연하는 제9회 양촌꽃감가요제가 진행돼 대체로 운물거리가 축제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킬 예정이다.

또한 김와인, 김시초, 꽃감차 시음회와 감으로 만든 가지각색의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시식행사는 물론 명품꽃감 및 청정 햇빛촌에서 재배한 신선한 딸기, 상추, 굴취 등 농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어 일석이

조다.

이외에도 궁중한복체험·꽃감떡장 포토존·매추리 구워먹기 등 다양한 연령층의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들이 준비돼 겨울의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문갑래 추진위원장은 "우수한 품질의 양촌 꽃감 뿐 아니라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달달한 꽃감도 맛있게 즐기고 따뜻한 정과 함께 풍성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양촌꽃감축제에 많이 놀러오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논산=김태선기자

동정

김평희



구본영 천안시장은 6일 오전 10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희망2019 나눔캠페인 순회모금 행사에 참석하고,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2018년 동원·예비군 정기감사 강평회에 참석.

한마음대회



황명선 논산시장은 6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개최되는 제19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2차본회의)에 참석, 오후 2시 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되는 자원봉사 한마음대회에 참석.

자원봉사자의 날



최홍목 계룡시장은 6일 오후 2시 계룡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계룡시 자원봉사자의 날에 참석.

체육인의 밤



노박래 서천군수는 6일 오전 11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전달식에 참석, 오후 2시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열리는 2018 서천군 평생학습성과공유회 참석, 오후 5시30분 군민체육관에서 열리는 2018서천군 체육인의 밤에 참석.

농업대학 졸업식



박정현 부여군수는 6일 오전 10시30분 부여군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리는 굿뜨래 농업대학 졸업식에 참석.

겨울방학 아르바이트 대학생 모집

계룡시, 20명 모집,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신청·접수

계룡시가 겨울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 대학생 20명을 모집한다.

시는 방학동안 관내 대학생들에게 사회 경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내년 1월 7일부터 2월 1일까지 20일간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부터 주민등록상 본인 또는 부모의 주소가 계룡시에 되어 있고, 전문대 이상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선발된 아르바이트생은 첫날 근무조건 등의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시청 실·과·소와 면·동에 배치돼 하루 8시간 주 5일간 행정 및 현장 지원 업무를 하게 되며, 1일 6만 6800원의 보수가 지급된다.

접수는 오는 12일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이며 이메일 신청, 방문 또는 우편(접수처 시청 자치행정과)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다자녀 가정 등은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사회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시청 이해를 제고할 위해 매년 대학생 아르바이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관심 있는 관내 대학생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궁금한 사항은 계룡시청 자치행정과(042-840-2106)로 문의하면 된다.

지역안전도 2등급으로 '수직 상승'

천안시, 지난해 8등급 받았던 지역안전도 2등급 상승

천안시가 올해 전국 228개 지자체 대상 자연재해 지역안전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해 지역안전도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지역안전도 평가에서 8등급에 머물렀던 천안시는 재해 예방 대책 추진 능력과 재난취약지역 점검·관리 등 이면에 6개단이 수직 상승한 2등급을 받았다.

지역안전도 평가는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이 자주적인 방재 역량 제고와 저변 확대를 위해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라 매년 지역안전도 진단을 실시 후 공표한다.

지역안전도 진단은 ▲재난발생가능성과 재해취약요인을 나타내는 재해위험요인 ▲재해저감을 위한 행정능력을 나타내는 예방대책추진능력 ▲구조적인 재해방어능력을 나타내는 예방시설정비 등 3가지분야 55개 지표를 고려해 최종적으로 1등급에서 10등급으로 평가한다.

※1등급에 가까울수록 더 안전한 것을 의미

시는 그동안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난위험시설을 체계적으로 점검·정비함은 물론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자연재해 위험 병영·마정지구가 내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으며, 내수침수 재해예방사업, 산사태취약지정 정비사업, 지진재해대응훈련 및 예경보시스템 정비사업 등 각종 재난에도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천안=채기병기자

계룡시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종합 안전대책 추진

대설·한파 등으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 최소화에 총력

계룡시는 겨울철 대설, 한파 등으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피해 예방에 주력하고 피해발생 시 단계별 상황에 따라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재난 취약지역의 안전점검 실시, 제설 자재·장비의 사전 확보 및 정비, CCTV관제센터와 재난상황실을 연계한 실시간 상황관리 등으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특히 제설취약 지구별 담당자와 도로별 제설 우선순위를 정하고 덩크프트 등 20여대 제설장비, 연화

칼슘 74톤 등을 확보했으며 신도안면 밀목재 고개도로 등 4개소에 연사분사장치 등도 갖췄다.

또한 공무원, 마을제설반 등 45여명의 제설 전담인력을 배치해 대설 단계에 따른 효과적인 도로제설과 교통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더불어 재난 예?경보시설, 마을방송, 시정 소식지, SNS 등을 활용한 기상특보 안내, 재난별 대처요

령 등 재난 예방 홍보와 내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등 자율적 제설 작업을 위한 주민 참여도 유도한다.

또 독거노인, 노숙자 등 취약계층의 한파로 인한 고립, 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부서,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안전관리 및 피해 예방 등에 주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 및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로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논산딸기 '킹스베리' 동남아 시장 상륙

킹스베리 수출연합사업단 중심수출 확대 계획·200만불 목표 추진

논산 '킹스베리' 딸기가 동남아 시장 입맛 공략에 나섰다. 논산시(시장 황병선)는 5일부터 논산에서 자체개발·생산한 '킹스베리' 딸기를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에 본격적으로 수출하고, 12월

하순에는 홍콩, 말레이시아, 미국 등으로 수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충청남도(충남농업기술원), 노성농협, 노성농협 딸기공선출하회,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와 협력해 '논산

킹스베리 수출연합사업단'을 조직하고 논산딸기수출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다.

킹스베리 품종은 논산딸기시험장에서 개발돼 논산지역을 중심으로 재배되고 있는 대과종으로 당도와 식감이 우수하며, 딸기 고급화 전략을 통해 국내외 시장 점유율을 높여 가고 있다.

지난해 홍콩 등 동남아에 115톤(124만불)이 수출됐으며, 올해는 킹

스베리에 주력해 150만톤(200만불) 달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시는 논산딸기가 국내는 물론 해외 바이어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어 지속적으로 재배 면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더 넓은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논산 킹스베리 수출연합사업단'을 중심으로 재배기술·수출·유통 컨설팅 등의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천군농업기술센터 겨울철 영농시설 안전관리 당부

관내 주요 영농시설 농축산물 피해 최소화 위한 안전관리 중요



서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 석희성)는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시설하우스, 축사 등 주요 영농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사전점검 및 당부에 나섰다.

농업기술센터는 본격적으로 날

센터에 따르면, 부직포, 커튼, 터널 등 보온덮개를 보강 설치하면 난방비를 절감하고 작물 저온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시설하우스에서 재배 중인 고추·방울토마토 등 과채류는 밤 온도를 12°C이상, 상추 등 엽채류는 8°C이상 유지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특히, 갑작스런 폭설이 예상될 때에는 눈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보강시설을 설치하고 차광망, 부직포 등 외부 시설물을 신속히 견여내어 눈이 미끄러져 내릴 수 있도록 조치한 후 눈이 그치면 하우스 주의 배수구를 정비해 습해를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

축사의 경우 닭은 25°C, 돼지 20°C 기준으로 10°C이상의 기온 차가 나면, 스트레스에 의한 면역 및 생산성이 저하되므로 실내온도 편차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씨가 추워지고 올 겨울 기습적 한파 기승이 예상됨에 따라 농업시설물 관리 소홀시 피해 발생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영농시설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천안시 복합기능의 주차장과 문화공원 시설 조성

오룡 주차빌딩·공원 조성공사 최종보고회 열려... 최종 설계안 확정

천안시 원도심에 복합기능의 주차장과 문화공원 시설이 들어선다.

시는 중앙거리 활성화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오룡 주차빌딩 및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오룡주차빌딩 및 공원조성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54억(중앙거리 40억, 문화예술 14억)이며

오룡동 20-1번지 일원 오룡지하차도 상부공간을 활용, 중앙거리활성화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대상 설문조사에서 가장 요구가 많았던 주차장과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오룡 주차빌딩은 대지면적 4018㎡에 연면적 4702㎡, 건축면적 998㎡ 규모로 조성되며 지하1층은 124대 차량을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지상1층은 기존 지형에 맞

는 지상공원과 옥상공원으로 조성된다.

공원은 지상과 옥상으로 나뉘어 올라가는 계단이 야외공연장의 좌석으로 사용되고, 관리사무실, 화장실, 공용면적 및 문화도시사무국 사무실 포함한 야외공연장, 전망센터, 아트카페와 아이테라스, 포켓쉼터 등을 갖출게 된다.

주차빌딩은 주변 접근도와 공원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설계돼 공간 확대 개량으로 주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주차장 확

또한, 겨울철 시설원예, 곡물창고, 축사 등 주요영농시설의 화재 발생이 우려되므로 전기, 가스, 난방기 등 사전점검을 통해 안전한 겨울나기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화재예방을 위해 난방기 연통부분에 비닐을 접하는 부분은 열차단 피복재를 사용하고 코트선 주변과 난방기 주위에 미세먼지와 인화성 물질이 없도록 조치해야하며 소화기를 화기 주변에 배치해 화재 발생 시 초기에 진화해야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김조원 서천군농업기술센터 원예특작기술팀장은 "사전 월동관리실천 사항을 관내 농업인들에게 홍보하고, 피해 농축산물에 대한 신속한 현장지도로 겨울철 피해를 줄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천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3일부터 관내 시설원에 및 축사 시설을 방문해 안전관리 상황 점검 및 현장지도도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7일까지 점검과 지도를 완료할 계획이다.

보는 물론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천안시는 이번 최종설계안을 토대로 허가를 받아 용역을 이달 말까지 완료한 뒤 내년 3월 공사착공에 들어갈 것을 예상하고 있다.

안동순 도시재생과장은 오룡동 원도심 일원에 지하 주차장과 공원이 조성되면 원도심을 찾는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와 도심 속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원도심을 활성화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천안=채기병기자



홍산면 한사랑회 사랑의 집수리 봉사 펼쳐

홍산면 한사랑회(회장 진광식)은 지난 1일 홍산면 행정복지센터와(면장 조희철)연계해 현장 창호가 없고 바닥이 꺼져 한파와 안전사고에 노출된 장애인 노인부부 가정을 방문해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추운날씨에도 회원 10여명이 참여해 지붕수리, 현관을 새롭게 만들었고, 수도와 전기도 점검해 추위와 더위는 물론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만들었다.

조희철 홍산면장은 "바쁜 일정에도 시간을 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웃에게 좋은 환경을 선물해 준 한사랑회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계속 애써줄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홍산면 한사랑회는 아름답고 살맛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2014년부터 20여명의 회원들이 자체 회비를 모아 매년 집수리와 호 잔치를 실시하는 등 꾸준한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더불어 함께사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귀감이 되고 있다.

부여=김성규기자

(042)538-3030

통정

우금치전적 종합정보계획 설명회



김정섭 공주시장은 6일 오후 4시 고마에서 열리는 공주 우금치전적 종합정보계획 설명회에 참석.

성인문해교실 수료식



김동일 보령시장은 6일 오전 8시 20분 시청 회의실에서 열리는 목요간부회의, 오전 10시 보령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청소년 가요제, 오후 2시 30분 웨스토피아에서 열리는 성인문해교실 수료식 참석.

시정연구동아리 연구성과 발표회



맹정호 서산시장은 6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시정연구동아리 연구성과 발표회에 참석, 오후 6시 30분 서울공군회관에서 열리는 재정서산향우회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에 참석.

창조적 마을 만들기 준공식



문정우 금산군수는 6일 오전 11시 금성면 파초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준공식에 참석.

보령시합창단 정기연주회 개최

보령시는 오는 13일 저녁 7시 30분, 보령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보령시립성인 합창단 제23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아름다운 선율과 화음으로 지역예술 합창문화 발전을 선도하는 시립성인 합창단과 객원지휘자 '조지웅', 국악 그룹 이상, 카운터 테너 '임준혁', 피아노 '이선민'의 협연으로 진행되며, 독창과 합창, 국악합주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인다.

보령시립합창단은 직장인, 주부 등 48명과 예능단원 4명 등 모두 52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충청남도합창경연대회 대상, 2016년 거제전국합창경연대회 은상 및 충청전국합창경연대회 동상, 지난해 제1회 보령머드전국합창경연대회 동상 등 우수한 실력을 선보이고 있다.

공연은 별도의 예매 없이 당일 선착순으로 관람이 가능하며, 기타 문의는 보령문화 예술회관(930-3422)으로 하면 된다.

보령 = 김정미 기자

공직기강 특별감찰 운영 돌입

서산시, 공직기강 해이 및 당면업무 소홀로 인한 시민불편 예방... 부패행위 근절

서산시가 연말연시를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에 나섰다. 시는 연말연시 공직기강 해이 및 당면업무 소홀로 인한 시민불편을 예방하고,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및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감찰활동에 돌입했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구본종 부시장을 단장으로 4개반 13명으로 구성된 공직기강 감찰단을 구성했으며 상시 임행감찰(비노출)을 실시해 민원업무 소홀 등 직무태만 행위, 금

품·향응집대 수수행위 등 부정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직무를 이용한 공직자의 갑질행위, 근무시간 준수 등 복무기강,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비위 행위 적발 시 단호히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읍·면·동으로 공무원 품위유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하고 소속부서에도 엄중 경고해 공직자의 읍·면·동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민들이 자유롭게 제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감사반장에 바란다. 감사제보 및 갑질피해 신고센터, 공직비리신고센터,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 창구를 운영해 더 청렴한 서산시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이명주 감사담당관은 "연말연시에 자칫 흐트러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엄중히 확립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서산시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적극적 업무처리 과정

에서 불거지게 발생한 위반에 대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용해 관용처분하고 우수한 수범사례는 발굴 및 전파할 계획이다.

서산 = 김정민 기자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보령시는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4일까지 2019년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및 수행기관을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보령시에 주민등록돼 있는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으로, 장애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반명함판 사진 각 1매를 구비해 보령시청 사회복지과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참여하지 않음, 소득증가로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될 수 있다.

모집은 일반형 13명과 시간제 7명, 복지일자리 48명 등 모두 68명이며, 일반형의 경우 보조인 없이 사업수행이 가능한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저소득자로 주 40시간 동안 시청과 읍면동 등에 배치돼 행정 보조업무를 수행한다.

시간제 근무일반형과 근무내용과 조건은 같으나, 1일 4시간 등 주 20시간을 근무하고, 복지일자리는 주 14시간(월 56시간) 동안 읍면동 사무소에서 청사 환경 정리 및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계도, 지체·중증·신체 등 장애인협회 사업단 장애인복지시설 및 특수교육기관에서 장애학생 학습보조, 재활시장 관리 보조, 원에 직업 보조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보령 = 김태선 기자

우리/동네

금산인삼랜드 하행휴게소 지역 나눔 실천

군북면사무소에 라면 100박스 기부

금산인삼랜드 하행휴게소(대표 조원익) 및 재향군인회 단체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전담해 달라며 군북면사무소에 라면 100박스(250만원 상당)를 기부했다.

금산인삼랜드의 착한 기부는 2016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으며, 지역 나눔을 실천하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이날 기부된 라면 100박스는 군북면 맞춤형 복지팀의 사례관리대상자, 독거노인, 저소득층 등 동절기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필식 군북면장은 "겨울에 더욱 소외되는 이웃들을 생각하여 착한기부를 실천한 인삼랜드 하행휴게소에 감사드리고, 군북면 곳곳에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산 = 주연기 기자

보령시 대천3동 공동주택 관리소장과의 간담회 첫 개최

보령시 대천3동(동장 강진숙)은 지난 4일 오후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13개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을 초청한 가운데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각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함으로써 지역의 일을 함께 공유하고, 굳건한 협력관계를 통해 당면 및 각종 행정지원의 기반을 갖추기 위해 첫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날 대천3동은 내외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 지원 등 시정 현안사항은 물론, 올바른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요령, 동절기 대비 공동주택 별 연화갑급구입 권장 등 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간담회에 참석하신 한 관리소장은 "시정 및 동사무소, 관리소간에 긴밀하게 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반영하고 공동주택 내 행사 등에 대해서는 행정지원을 요청하는 등 긴밀한 협력 관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숙 대천3동장은 "주민들과의 1차적인 소통 창구인 통·반장님들과 함께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담아낼 수 있는 관리소장과의 간담회로 상생협력의 첫 발을 내딛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따뜻한 동정,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령 = 김정미 기자

금산인삼 베트남 하노이 집중 공략

세미나·수출상담회·판촉전 등 홍보마케팅 활동 펼쳐

베트남 하노이 금산인삼전이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4박 5일의 일정으로 진행돼 관심을 모았다.

문정우 군수를 포함한 공무원 4명, 연구소 1명, 기업인 3명 등 총 8명이 참여해 금산인삼의 우수성을 알리는 세미나, 수출상담회, 판촉전 등 홍보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동남아권 우량바이어 포함한 언론, 유통 관계자들이 참석한 세미나에서는 과학적 근거 제시를 통해 한국인삼이 열을 올린다는 승열작용의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켰다.

특히 홍보마케팅 팀은 12월 1일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 부부와 aT센터 아세안 하노이 지사 지역본부장 면담결과 금산인삼 수출확대에

대한 협력을 약속받았다.

3일 박민성 시장 방문시에는 금산군과 상호 방문 및 교류 의사를 확인하고 박민내 인삼제조기업 설립 투자를 제안받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판매행사는 지양하고 시장내 소비트렌트 분석 조사로 대체하면서 B2B수출상담회 위주로 사업내용을 변경해 갈 것"이라며 "해외 마케팅 성과 분석 및 맞춤형 운영 실태조사를 통해 해외 마케팅의 효율성을 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산 = 김정민 기자

공주시 옛 충청감영 포정사 문루 재현

공주시대부고 정문에 복원하고 준공식 가져

옛 충청감영의 정문이었던 포정사 문루가 복원됨에 따라, 공주 원도심의 새로운 명소가 탄생했다.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지난 4일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정문에 복원된 충청감영 포정사 문루 재현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포정사 문루는 옛 충청도관찰사가 공무를 집행하던 충청감영의 정문으로 사용했던 건물로, 시는 감영도시로서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총 사업비 17억원을 투입해 포정사 문루 재현사업을 추진했다.

이번에 재현된 포정사 문루는 정면 5칸, 측면 2칸, 연면적 95㎡의 규모로 복원했으며, 이와 함께 시대 부고 담장을 한식담장으로 개축함으로써 감영터 길을 고도(古都)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다.

시는 앞으로 충청감영 역사문화자원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재현도니 문루 안에 충청감영의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는 디지털 전시판

을 조성할 예정이다.

김정섭 시장은 "재현된 포정사 문루는 태종사지, 공주목터, 하숙마을로 이어지는 공주원도심의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역사도시로서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원도심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충청감영은 1603년 공산성에 설치되었다가 몇 차례 이전 과정을 거쳐 1707년 봉황산 아래(현 공주 시대부고)에 자리 잡았는데, 감사의 기능이 임금의 덕화를 널리 퍼뜨리고(承流宣化), 맑고 깨끗함(澄澗)에 있다는 데서 선화당, 정청명(明)의 포정사를 모방해 감영의 정문을 포정사 문루라고 이름이 붙여졌다.

포정사 문루는 일제강점기에 이르러 많은 변화를 겪었는데, 일제강점기에 '충청남도 포정문'으로 명칭이 바뀐 문루는 다시 '남문(南門)'이라고 개칭됐으며, 이후 행정개편으로 인해 그 기능이 축소되고

도청이 대대로 이전한 뒤에 일본인들에게 매각되어 교통역 공주군청 열 1도로 옮겨져 금남사라는 일본정로 쓰이기도 했다.

이후 교통으로 이전된 포정사는 정면 5칸, 측면 2칸 규모의 이익공계동 겹처마 건물로 1980년 12월 29일 충청남도유형문화재 제 93호로 지정되었다가 1985년 해체하여 공주군청 경내에 보관됐다.

1993년 문화재적 의미와 가치를 되살려 선화당, 흥천과 더불어 흥진동에 복원했는데, 복원된 포정사 문루는 평면구조가 정면 5칸, 측면 2칸이다. 1층의 양옆은 판자벽으로 막고 가운데 3칸만 문을 만들어 출입할 수 있게 했으며, 2층은 누마루로 난간을 둘러고 서쪽에 오르내리는 계단을 만들었다. 우진각 지붕을 올렸으며 정면에는 충청도포정사(忠淸道布政司)라는 편액이 걸려 있다.

공주시는 2018년 충청지역 감영도시로서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포정사 문루가 있었던 자리에 새롭게 포정사 문루를 재현했다.

공주 = 정성범 기자

2018 지방인사혁신 경진대회 서산시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서산시가 지난 4일 서울정부청사 별관에서 열린 '2018 지방인사혁신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방인사혁신 경진대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혁신 우수사례를 발굴, 공유, 확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날 경진대회는 전국 38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서 응모한 우수사례 중 1차 예선을 통과한 12개 지자체가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심사를 거쳐 수상 지자체를 선정했다.

서산시는 '공감 & 공정 인사'를 주제로 민선 7기 맹정호 시장의 선거공약 "모두가 공감하는 공정한 인사정책"의 추진 과정을 발표한 큰 호

2018 지방인사혁신 경진대회



응을 받았다. 시는 인사소통마당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인사에 대한 소통과 공감대를 높여가는 한편, 휴직자의 복직 및 복무상황 신고 등 인사업무의 모범일로 처리토록 직원 편의를 도모했다.

서산 = 김정민 기자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가장 '자연'스럽게 달리는 기술

엔프렌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 개발된 '자연'스럽게 달리는 기술입니다. 엔프렌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 개발된 '자연'스럽게 달리는 기술입니다. 엔프렌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 개발된 '자연'스럽게 달리는 기술입니다.

엔프렌
알프람 효과란?

오늘의 하이라이트

▲ 차달래부인의 사랑 (KBS2 오전 9시00분)



진옥은 호텔 로비에서 가운데 입고 서성이복 남을 보고 압담해지고, 복남은 진옥에게 자신의 치매를 고백한다. 고대하던 뮤지컬의 오디션을 보러 간 미래는 심사위원석에 앉은 장호를 보고 놀라는데..

▲ 강남스캔들 (SBS 오전 8시30분)

"나도 좋아해" 신고는♥서도영 관계 진전 예고?! 암마의 치료비를 구해 기쁨에 찬 소유. 하지만 기쁨도 잠시 병원에 다녀온 소담으로부터 이후 치료

케이블 영화

▲ 베테랑 (OCN 오후 7시10분)

한 번 쫓긴 것은 무조건 끝을 보는 행동과 '서도철' (황정민), 20년 경력의 승부사 '오필장' (오달수), 위장 전문 홍일전 '미스봉' (장유주), 육체파 '왕형사' (오대환), 막내 '윤형사' (김시후)까지

오랫동안 쫓던 대형 범죄를 해결한 후 숨을 들리려는 찰나, 서도철은 재벌 3세 '조태오' (유이인)를 만나게 된다.

세상 무서울 것 없는 안하무인의 조태오와 언제 나 그의 곁을 지키는 오른팔 '최상부' (유해진), 서도철은 의문의 사건을 쫓던 중 그들이 사건의 배후에 있음을 직감한다.

건들면 다친다는 충고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서도철의 집념에 판은 견잡을 수 없이 커져 가고.. 조태오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유유히 포위망을 빠져 나가는데...

베테랑 광역수사대 VS유아독존 재벌 3세 2015년 여름, 자존심을 건 한판 대결이 시작된다!

케이블 & 위성 방송

▶YTN 021398-8000 ▶스카이라이프 1588-3200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060-398-3355

영화·오락

스포츠·레저

뉴스·다큐

음악·애니

OCN 7:50 신의 퀴즈리뷰 9:10 크리미널 마인드 시즌13 12:20 잭 리처 15:00 프리스트 17:40 신의 퀴즈리뷰 19:10 베테랑 21:40 신의 퀴즈리뷰

MBC스포츠플러스 10:00 메이저리그 클래식 12:00 <당구스페셜>2018 포르투 3쿠션 당구 월드컵 32강 14:00 <당구스페셜>2018 포르투 3쿠션 당구 월드컵 16강 15:00 2018 자카르타-팔렐방 아시안게임 남자 농구 3X6 하이라이트 16:00 18-19 프로농구 Q.UTCH TIME

YTN 8:00 뉴스특보 10:00 뉴스특보 12:00 뉴스이슈 14:00 호준석의 뉴스인 16:00 뉴스Q 18:00 뉴스통 19:30 신들의 시시태랑 20:15 YTN 24 21:00 YTN 국민신문고

MBC 뮤직 9:00 피크닉 라이브 송 10:00 MBC MUSIC HIT SONGS 11:30 Show Champion 13:30 대한 외국인 15:10 주간 아이돌 16:10 토크 노마드 17:10 쇼 챔피언 비하인드 18:10 복면가왕

채널 CGV 6:30 나를 찾아줘 9:20 싱글라이더 11:20 본 슈프리머시 13:30 투모로우랜드 16:00 굿바이 싱글 18:20 신데렐라(2015) 20:20 공작부인:고스트 인더 셸 22:30 스타트렉:다크니스

SBS 스포츠 11:00 2018 월드컵 전도 그래픽 파이널 12:30 2018 LG U+컵 3쿠션 마스터스 13:50 2018 SBS 프로볼링 원주 투어 16:00 18-19V12 그여자부 18:00 2018 AFF 스포츠컵 하이라이트 18:50 18-19V12 그남자부

한국경제TV 6:00 굿모닝 투자의 아침 8:30 출발 중시830 10:00 증시리인 10 12:00 재테크, 알아야 번다 13:00 증시리인 13 15:40 부자권민 만들기 연금술사 16:30 한국경제 이슈N 17:00 성공예감 부동산재테크 18:00 생방송 부동산현황 19:00 보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00 정의주식 사구팔구 21:00 대박 천국

애니맥스 7:00 파워레인저 다이노포스 브레이브 8:00 타닝메카니 W 시즌 9:00 꼬마버스 타요4 10: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2 11:00 레인보우 루비 12:00 몬스터 vs 엘리언 13:00 마술의 소리 14:00 안녕! 괴물기발 15:00 아들은 너무 이상해 16:00 타오르자마버스터 17:00 포켓몬스터 섀론 18:00 베이비레이더 버스트

Mnet 7:20 IZONE CHU 8:50 M COUNTDOWN 10:30 역대 MAMA 베스트 퍼포먼스 11:30 인싸체널 체리블렛 12:30 2015 MAMA 베스트 퍼포먼스 14:20 MPD MusicTak SNS(메신저) 15:10 썸바디 17:00 Daily Music Talk 18:00 M COUNTDOWN 19:30 Live on M (SMS) 20:20 QT Show 21:20 M COUNTDOWN

온스타일 8:00 립스틱 프린스 9:10 갯잇뷰티 2018 10:20 국경없는 포차 12:00 발블레스유 13:00 발블레스유 14:00 꽃청춘워너 15:30 갯잇뷰티 2018 16:40 원나잇 푸드트립 스페셜 17:50 발블레스유 18:50 발블레스유 19:50 갯잇뷰티 2018 21:00 원나잇 푸드트립 스페셜 23:00 꽃청춘워너

내셔널지오그래픽채널 10:00 건강아침, 메디컬365 11:00 TV 동물농장 12:15 아시아헌터 13:15 <세계테마기행> 동경은 영화처럼 흐르고 일본영화기행-4부 14:15 이주의법칙 14:45 <변덕스러운 동물들> 1부 - 짝짓기게임 15:45 <변덕스러운 동물들> 2부 - 흥포환가족 16:45 TV 동물농장 17:50 발블레스유 19:00 <세계테마기행> 동경은 영화처럼 흐르고 일본영화기행-4부 20:00 아시아헌터

JET 재능방송 6:00 유희왕 7:00 파워레인저 다이노포스 브레이브 8:00 파워레인저 다이노포스 브레이브 9:00 파워레인저 시즌2 10:00 변신자동차 못 12기 11:00 출동! 슈퍼왕 12:00 세서미 스트리트-엘모더 뮤지컬 13:00 치랑치랑 XYX 뉴츠허리 14:00 포켓몬스터 XY 15:00 12명운전자 16:00 농자미정신술 17:00 예술론 토닥

프로그램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TJB/SBS, CMB, and EBS, listing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세뱃돈 받고, 활기찬 새해 열자! 2019 대전 맨몸마라톤

내년 1월 1일 11시 11분 11초, 대전엑스포리에서 출발



대전엑스포시민광장에서 '2019 대전방문의 해' 첫 행사로 이색 이벤트가 펼쳐져 특별한 새해맞이를 꿈꾸는 가족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충청권 주류 대표기업 맥키스컴퍼니(회장 조웅래)가 주관하는 '2019 대전 맨몸마라톤' 대회의 세뱃돈 특별이벤트다.

* 문의 ▶ KBS 470-7320 ▶ MBC 220-2348-9 ▶ TJB 281-1101 ▶ SBS (02) 369-1090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산시, 블로그 공모전 최우수작 선정

'2019 대전 맨몸마라톤' 대회는 갈대 숲과 물길코스를 따라 이어지는 아름다운 풍광 속에서 새해 활기를 다지는 이색적인 새해맞이 행사다. 2016년 대회를 시작으로 4회째를 맞았으며, 1월 1일 11시 11분 11초에 출발해 '1'이라는 숫자로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 미 짧은 중의 참여가 높아 새해 맞이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는 등 많은 이들의 버킷리스트(bucket list)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아산교육지원청, 감성소통 '송년 월례회' 개최

한해의 성과 되돌아보면서 예술인들과 함께 문화 공감 시간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시훈)은 5일, 교육청 대강당에서 2018년 마지막 달인 12월을 맞이해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감성 소통 송년 월례회'를 특색 있는 프로그램과 함께 진행했다. 한 해의 성과를 되돌아보면서 아코디언 선율로 예술인들과 함께 하는 문화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

하는 월례회에서 직원들과 소통하며 격려했다.



조폐공사 레슬링팀, 종합우승 쾌거

한국조폐공사(사장 조웅만, www.komsco.com)레슬링팀이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강원도 철원군 철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2회 전국 레슬링종합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며 남자 일

자동차 종합 정비공장
에스더블유기업(주) SW
Lexus, Honda, KIA, MG, KIA, KIA, KIA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121 | Tel: 042-579-1801 | Fax: 042-521-1833 | 대표이사 안경호
Mobile: 011-429-8277 | e-mail: keungho2700@nate.com | www.sw-motors.com

명성레포츠
대전시 서구 월평동 3479-6 TEL: (042)440-3000-480-7070
FAK: (042)472-5885 H: P: 011-486-0860 Website: www.mslreports.co.kr
최재중



'십사일반' 신축 도서관 발전기금 4,640만원 기부 충남대학교 도서관 직원들이 새롭게 지어지는 도서관의 시설확충기금으로 써달라며 운영남관장 등 충남대 도서관 관계자들은 12월 5일 오후 2시 30분, 오덕성 총장을 방문해 도서관발전기금 4,640만원을 전달했다.



농협중앙회 당진시지부, 입후보예정자 공명선거 실천 결의 당진시지부(지부장 이석우)는 지난 4일 내년 3월에 실시되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와 함께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보령축산업협동조합, 이웃돕기 후원물품 전달 보령시는 5일 오전 시청광장에서 김동일 시장과 윤세중 보령축산업협동조합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웃돕기 후원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건협 어머니사랑 봉사단,보육원에서 봉사활동 실시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지부장 김홍철) 어머니사랑 봉사단은 5일 서구 정림동 보육시설 후생학원에서 숙소와 생활시설 등에서 대청소를 시행했다. 건협 어머니사랑 봉사단은 2019년에도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에 적극참여해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석대 '백석 글로벌 여성 CEO 과정' 4기, 대학발전기금 기탁 백석대학교(총장 장종현)·백석문화대학교 평생교육원 '백석 글로벌 여성 CEO 과정' 4기 수료생들은 12월 4일 교내 진리관 대학혁신위원회실에서 대학발전기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선문대, '한국외식음료경연대회'서 금상 등 휩쓸어 선문대학교(총장 황선조)는 지난 1일, 서울양재동에 위치한AT센터에서 열린 2018 한국외식음료경연대회에서 국제레저관광학과 학생들이 금상2개 포함 총 4개의 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배재대, 충청권 유일... 재차 해외취업 인정받아 고용부 '베스트 프랙티스' 대학 선정

배재대(총장 김영호)가 충청권 대학 중 유일하게 고용노동부의 '2018 청년드림 베스트 프랙티스'에 선정돼 해외취업 강자의 면모를 선보였다.

배재대 대학일자리본부(본부장 이채현)는 5일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 동아일보가 5일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한 '2018 청년드림 베스트 프랙티스' 해외취업 부문에 선정됐다. 청년드림 베스트 프랙티스는 진로개발·해외취업·취창업 지원에서 타 대학의 모범이 되는 우수 프로그램과 실천 사례를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배재대 대학일자리본부는 '학생들의 수준에 따른 단계별 해외취업 교육과정' 운영으로 충청권



이채현 대학일자리본부장은 5일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 동아일보가 5일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한 '2018 청년드림 베스트 프랙티스' 해외취업 부문에 선정됐다. 청년드림 베스트 프랙티스는 진로개발·해외취업·취창업 지원에서 타 대학의 모범이 되는 우수 프로그램과 실천 사례를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이번 사례는 학생 개인별 적성·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호평을 받았다.

특히 해외취업 교육과정 설명회·예비교육·심화교육·사후관

리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져 여학부터 직무분석, 취업연계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전 학년 대상 어학과정 및 IT 직무교육을 진행해 해외취업을 염두에 둔 교육과정도 눈길을 끌었다. 선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

본·중남미·미국 등 K-MOVE 스쿨을 가동해 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입사서류 클리닉, 모의면접 등으로 역량을 가다듬기도 했다. 해외에 재직 중인 동문 200여 명으로 멘토단을 구축해 SNS로 실시간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도 이뤄져 학생들의 취업 자신감을 심어줬다.

김영호 배재대 총장은 "한류열풍과 더불어 해외 취업이 대세가 되면서 학생 눈높이에 적절한 교육방식이 성과를 내고 있다"며 "배재대 대학일자리본부는 철저한 직무분석과 사후관리로 중남미·일본·미국에 취업률을 상승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대전도시철도, 운전기량 향상 위해 우수기관사 선발

'올해 최우수기관사 한태욱씨' 선정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는 5일 승객안전과 친절서비스 등 최고의 운전기량을 펼친 올해 최우수기관사 '디지털 톱마스터'로 승무원 한태욱(38세)씨를, 우수기관사에 이상호(43세), 강태광(43세)씨를 선정했다.

최우수기관사로 선정된 한태욱씨는 2007년 입사 후 지금까지 27만km 무사고를 달성한 모범기관사로 직무이론, 운전기량, 응급조치 능력평가 등에서 최고점수를 얻어 최우수기관사로 선정되어 시장 포상을 받았다.

한태욱 최우수기관사는 "고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하는 마음으로부터 임하고, 최상의 서비스로 열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사 김민기 사장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운행서비스 제공과 시민의 행복한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해마다 우수기관사 선발대회를 실시하고 있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호서대 교직원 '제지사랑 샌드위치 나눔' 행사 호서대학교(총장 이철성)는 4일, 아산캠퍼스 천원캠퍼스, 당진 산학융합캠퍼스에서 '제지사랑 샌드위치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호서대 교수와 직원들이 공부하는 학생들의 열정과 수고를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 직접 만든 샌드위치로 작은 사랑을 전하고자 마련했다.



운곡면 새마을 협의회, 사랑의 김장담기 행사 청양군 운곡면 남여새마을 지도자회(회장 엄기태, 명노순)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운곡면 사무소 광장에서 '2018년 사랑의 김장담기' 행사를 펼쳤다.



당진시 합덕읍 박덕영 농업인

'올해의 청년 농업인상' 수상

농협중앙회 당진시지부(지부장 이석우)는 지난 4일 합덕읍 박덕영 농업인(광야농장)이 농협중앙회에서 선정하는 '올해의 청년 농업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수상자는 농업계 대학을 졸업하고 2013년부터 농업에 종사하며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과학영농 실천과 특히 초경량 비행장치(드

론)를 활용해 노동력 절감은 물론 방제 대행 사업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청년 농업인이다.

'올해의 청년 농업인상'은 젊은 농업인을 발굴해 미래 농업 농촌을 이끌어 갈 후계농업인 육성하기 위해 2017년부터 농협중앙회에서 선정하고 있다.

당진=최근수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

'우리사랑'을 찾아 자원봉사활동

새마을금고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이재경)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 'MC희망나눔 사랑의 줌도리운동'의 일환으로 5일 직원 20여 명과 함께 대전 중구 어남동에 위치한 중증장애인지원센터 '우리사랑'을 찾아 100여만원 상당의 생활 필수품을 지원하고 팔레 및

청소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MC희망나눔 사랑의 줌도리운동'은 지역사회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복지지원을 목적으로 1998년부터 20년간 이어져온 새마을금고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다.

송병배기자



농협공주시지부, 사랑의 천사운동 '사랑의 난방유' 전달 N농협은행 공주시지부 차재희 지부장은 지난 4일 시청을 방문해 관내 소외계층에게 전달해 달라고 3000리터(3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사랑의 난방유' 나눔은 농협의 '사랑의 천사운동'의 일환으로 농협 임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소정의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해 지역사회에 소외계층 및 어려운 이웃을 돕는 운동이다.

대전세종연구원 국제학술행사 개최



대전세종연구원(원장 박재욱)은 12월 7일 13시 30분부터 대전컨벤션센터(DCC) 컨퍼런스홀에서 도시화현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국제학술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태국 S1대학교 카즈오 아마모토 교수의 기초강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물 기술의 올바른 이용'을 시작으로 총 4개의 세부주제발표와 전문가 집단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발표는 대전세종연구원 이재근 책임연구원의 "대전시 도심하천의 현황과 향후 관리방안", 두 번째 발표는 일본 국립연구개발법인 토목연구소 케이고 나카무라 박사의 "일본의 도시와 농촌 하천 복원", 세 번째 발표는 중국 화중사범대학교 슈양위 시에 교수의 "무한시 하천개조와 이용: 역사와 현재", 마지막으로 인도 VIT대학교 칸드라 세카란 교수의 "인도 벨로르의 팔라르강 유역 생태" 등의 발표가 진행된다.

세종=김태성기자

대덕소프트웨어미이스터고

배준영 교사, 올해의 스승상



대전시 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대전소프트웨어미이스터고등학교 배준영 교사가 '2018 올해의 스승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2018 올해의 스승상'은 교육부와 조선일보사가 공동 주최했으며, 유·초·중등교육(특수교육 포함) 분야에서 헌신한 우수교사를 발굴·시상함으로써 모범이 되는 스승상을 제시해 범사회적 스승 존경 풍토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2002년에 제정되어 매년 10~15명이 수상하고 있다.

교육경력 37년차인 대전소프트웨어미이스터고 배준영 교사는 학생 과학·발명 지도 활동과 발명교육센터 운영, 직업교육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봉사활동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김정환기자

■알림
▲ 서울 남북정상회담 대전시민 환영위원회 결성 기자회견
=6일(목) 오후 3시,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모여서100)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

칼럼

시진핑 중국주석의 따오기



이창호

이창호스피치리더십연구소 대표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인 1925년 발표된 이봉준학자 윤극영의 중요 따오기는,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따옥 따옥 따옥 소리 처량한 소리/ 떠나가면 가는 곳 어디에 이노/내 어머니 가신 나라 해 돋는 나라"라는 노래말에, 일제식민지하의 간접하고 애잔한 민족의식이 짙게 배어 있다. 이 때문에 일제는 이 노래를 가장 금지곡으로 정해 부르지 못하게 했고 광복 이후에도 부를 수 있게 되어 교과서에까지 실리게 됐다.

한중 '따오기 외교'로 따오기의 복원 작업이 결실을 맺어 가고 있다. 1차 복원 작업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전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후진타오 따오기'가 들어왔다. 임수 한 쌍으로 양저우(洋洲)와 룽팅(龍亭)이다. 창녕 우포따오기복원센터에서는 이들의 알의 인공부화에 성공하기도 했다.

또 2차 복원 작업은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때 중국이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시진핑 따오기'로 수컷 바이스(白石)와 진수이(金水)를 들여온 것

이 그것이다. 근친교배를 막고, 성비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이들은 아시아나 여객기의 비즈니스 칸을 통째로 세를 내어서 들여왔다.

중국과의 '따오기 외교'로 한·중 간의 유대가 더욱 강화되고 발전했다. 특히 중국의 급속한 부상과 미중 세력 관계의 변화, 중국 외교정책이 미세한 조정, 미국의 아시아 및 중국 정책의 변화, 북한의 핵문제와 생존 전략, 한국의 외교정책 및 북한 정책의 변화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따오기의 복원이 순조롭게 이뤄져서 우리 주변에서도 따오기를 볼 수 있고,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기대했다. 따오기의 개체수가 줄어들기 시작한 1960년대와 1980년대는 세계여행의 이권 다툼과 이념적 갈등으로 전쟁이라는 조류의 사태가 발생했고, 그 후 점진적으로 따오기가 사라졌다.

한편 따오기 사업은 한·중 양국 사이 우호의 상징으로 의미가 남다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따오기의 보호와 협력에 관한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시 주석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면서 따오기를 선물했기 때문이다. 창녕군은 중국으로부터 2008년 따오기 1쌍을 도입하고 2013년 수컷 2마리를 추가로 도입해 따오기를 증식, 보유하는 데 성공했다. 현재는 내년엔 있을 따오기 야생방사에 대비해 서식지 조성사업과 더불어 적극적인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포늪 따오기복원위원회 김영철 위원장은 "10년 동안 따오기를 복원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363마리의 성공적인 복원이 이뤄졌고, 따오기 자연 방사 후 우포늪에서 따오기를 볼 수 있도록 서식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우 창녕군수는 "모두의 노력으로 따오기 증식이 성공적으로 이뤄졌고, 따라 내년 야생방사를 앞두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따오기가 야생에서 잘 적응해 우포늪뿐만 아니라 창녕군, 더 나아가 대한민국 하늘에서 창녕 우포따오기의 힘찬 날갯짓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설

전좌석 안전띠 착용 반드시 준수해야

경찰이 이달 한 달간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위반을 특별단속하고 있다.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 9월 28일 시행돼 2개월간 대국민 홍보와 현장 계도를 거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6만원으로 늘어난다. 택시와 시외버스는 차내방송 등을 통해 안내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역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다.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차 비싼도로 땡겨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뒷좌석의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본인도 피해를 볼 수 있다. 본인과 동승자들을 위해 안전띠를 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교통사고가 날 경우 치명적이라는 것은 여러 연구

결과에서도 나왔다. 보험사에 접수된 최근 사고 5년 치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치사율이 10배 이상 높았다. 평균으로 보면 맨 경우 0.2%에 불과했지만, 미착용의 경우 2.4%로 12배나 위험했다. 그만큼 안전띠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런데도 시민들이 뒷좌석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유감이다. 경찰이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수많은 차량이 단속됐다. 대개는 그동안 홍보와 계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는 것이다. 시민의식을 탓할 수밖에 없다.

경찰의 단속은 특별단속 후에도 지속해야 한다. 이에 대해선 업계의 협조도 필요하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안전띠 장치가 잘 안되어 승객들이 불편해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시민들도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안전띠 착용을 준수해야 한다.

기고

가족친화인증,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현아

대구대학교 연구교수

최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회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건'을 조사한 결과에서 '일과 삶의 균형, 즉 워라밸이 가능하진 않는다'는 응답이 55.2%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워라밸이 연봉보다 더 중요한 사회가 되었다는 뜻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일가정양립 지표에서도 2017년 '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43.1%로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으며 '일과 가정생활을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2년 전에 비해 8.5%가 증가하여 42.9%로 늘었다. 일과 가정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고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는 워라밸 시대가 된 것이다.

올해로 시행 10년째를 맞이한 가족친화인증제는 워라밸 시대 트렌드에 부합하는 정책이다. 가족친화인증은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사회환경 조성추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2008년 14개 기업이 인증 받은 이래 2018년 2802개 기업·기관이 인증을 받았다. 10년 사이 인증기업·기관의 수가 200배 증가했을 정도로 양적 성장은 놀라운 수준이다.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인식과 활용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질적인 성과라고도 할 수 있다. 매년 발표되는 통계청의 일가정양립

지표는 기업에서 일·가정 양립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비율과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필자는 가족정책관련 연구자이면서 가족친화컨설턴트와 가족친화인증심사원으로 많은 기업 사례를 접하면서 실제 가족친화에 대한 기업의 변화를 실감하게 된다. 초기 기업에 가서 인사담당자나 근로자들을 만나면 항상 "가족친화"가 뭐예요?"라는 질문에서부터 면담이 시작되었다. 그만큼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다는 뜻이다.

가족친화의 개념에서부터 시작하여 가족친화제도의 유형, 가족친화제도의 다양한 사례 등 설명이 구구절절해야만 했다. 한참 설명하고 나면, 대부분은 "오! 가족친화가 그런 거였군요. 근로자들에게 참 좋은 제도네요. 하지만 무한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기업의 현실에서는 요원한 제도네요. 일단 기업이 매출을 올려 성장하는 게 더 중요하죠."라고 반응한다.

가족친화제도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제도도 경영자 입장에서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다. 매우 드문 사례이긴 하지만 가족친화경영의 우수사례로 손꼽히는 기업에 가면 CEO가 가족친화경영을 기업의 주요 가치와 비전으로 내세우고 근로자의 일가정양립지원을 위한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동시에 직무몰입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원천 전략을 구사하기도 한다.

이런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인터뷰해보면, 일가정양립을 지원하고 배려해 주는 기업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그만큼 일도 열심히 하며 회사를 떠날 생각도 없다. 그야말로 '근로자의 일가정양립'→'삶의 만족, 직무몰입'→'기업에 대한 충성'→'직무몰입'→'장기근속'→'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는 가족친화경영의 선순환구조가 실현되는 현장을 보게 된다. 10년 전만 해도 이처럼 가족친화인증의 효과

를 입증하는 사례를 접하는 것은 외국계 기업에서나 볼 수 있는 드문 일이었다.

올해 가족친화인증 심사를 하면서 급변하고 있는 기업문화와 피부로 느꼈다. 이제는 '가족친화'라는 개념 설명없이 바로 가족친화제도 활용을 이야기하는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일가정양립, 일생활균형, 가족친화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워라밸은 이제 모든 근로자의 삶의 가치가 되었고, 기업의 주요 경영전략이 되었다. 정치사면은 이제 자연스러운 기업문화로 정착되어 가고 있었다.

2009년 여성가족부가 시작한 '가족사랑의 날' 캠페인은 일주일 동안만 정시퇴근하여 가족과 저녁 시간을 함께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초기 형식적인 캠페인에 불과하다는 비난도 일부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정시퇴근이 자연스러운 기업문화로 정착되어 수요일 뿐 아니라 매일 정시퇴근이 당연시되는 기업이 많아졌다.

근로자 인터뷰를 해 보면, 워라밸 세대 젊은 근로자들은 눈치 보지 않고 정시퇴근을 하고 그래도 남아서 일처리를 한다는 과·팀장님들을 만날 수 있다. 가족친화인증심사 지표에는 정시퇴근제 시행여부를 묻는 항목이 있는데 간혹 매일 정시퇴근이 당연한 기업문화를 가지고도 '가족사랑의 날'과 같은 제도가 없어 점수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다.

더 심하게는 모든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출퇴근시간을 관리하는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연근무제 활용 점수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사례도 있었다. 이 기업의 경영자는 출퇴근을 전적으로 근로자의 책임과 자율에 맡겨 근태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근로자들이 알아서 출퇴근을 관리하니 근태관리 비용이 줄었고 업무효율성은 더 높아졌다고 했다. 가족친화인증을 위한 유연근무제 지표의 점수는 못 받았지만, 가족친화 인증을 받고도 남을 만큼의 유연한

조직문화를 보여준 사례였다.

특히, 작년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인증이 의무화되면서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제도 활용수준은 더욱 진전되었다. 공공기관과 대기업에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고 사용하고 있으며, 시차출퇴근제 형태의 유연근무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수준이 된 것 같다.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나 남성 육아휴직제를 사용하는 젊은 직원들을 보면서 중견관리자들은 참 세상 좋아졌다고 한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처럼, 가족친화인증 10년 사이 실로 놀라운 정도로 기업문화가 변하고 있음을 실감한다.

하지만 여전히 열악한 상황에 있는 기업들도 많다. 출산휴가만 겨우 사용하고 복직해야만 하는 근로자들도 여럿 만났다. 대체인력이 없어서, 상사 눈치 보느라, 경력단절이 두려워서 등 이유는 다양했다. 아직도 '가족사랑의 날' 지정을 통해 그 날만이라도 정시퇴근을 독려해야 하는 기업이 많다.

유연근무제를 논하기도 힘든 경직된 문화에서 외출타기를 하며 일과 가정의 선택에 기로에 있는 근로자들도 많다. 가족친화인증을 위한 최소 법규 준수사항 13가지가 취업규칙에 비롯이 있지만 그림의 떡인 경우가 아직도 많다.

이제는 가족친화제도의 도입에서 가족친화제도의 활용과 가족친화 문화로의 정착을 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가족친화인증은 실제 기업의 가족친화제도의 활용수준을 높이고 이것을 자연스러운 문화로 정착시키는 효과적인 전략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족친화제도의 성과와 효과를 입증하는 사례와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가족친화인증 지표도 개선되어야 한다. 워라밸 시대, 근로자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길이 바로 가족친화에 있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가족친화인증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제2의 녹색혁명을 기대하며

기고



서은정

국립농업과학원 원전지공학과 농업연구사

미국의 식물학자인 노먼 보로그 박사는 연구자로서 1970년에 노벨평화상을 받은 인물로, 1960년대 밀 수확량을 2배 이상 올려서 저개발 국가의 식량 문제를 과학으로 해결한 녹색혁명을 일으킨 분으로 잘 알려져 있다. 최근에 일리노이주 대학의 농박사범은 앞으로 제2의 녹색혁명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일으키는 연구결과를 SCIENCE지에 발표했다. 주 연구내용은 식물의 햇빛 방어 시스템을 바꿈으로써 광합성 효율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

식물은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거의 완전한 독립적인 개체라고 할 수 있는데 태양에너지를 이용해 이산화탄소와 물로 영양분탄수화물을 만든다. 하지만 과다한 태양에너지가 공급될 경우 식물체의 잎은 사람처럼 화상을 입게 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서 과다한 햇빛을 열로 바꾸어 발산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적절한 환경이 되면 다시 원상태의 광합성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방어시스템을 해

제하는 속도가 느려 이 과정 동안에는 광합성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연구진들은 이 과정을 더 빨리 진행할 수 있게 만들었다. 담배에서 태양광을 열로 바꾸는 과정을 차단하는 단백질을 찾았고 유사한 단백질이 애기장대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콩박사범은 햇빛을 열로 바꾸는 것을 차단하는 애기장대 유전자 세 셋트를 담배에 추가로 넣는 시도를 하였다. 그 결과 과다한 햇빛을 방어하기 위한 시스템에서 광합성으로 복귀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부작용 없이 담배의 무게가 기존보다 14~20%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좀 더 분석해 보면, 무게가 늘어나기 위해 광합성 효율도 15% 이상 증가했고 식물의 성장률도 15% 이상 늘어났다고 한다. 만약 이러한 연구를 우리가 먹는 배나 옥수수 같은 주요 식량작물에 응용할 경우 생산량은 최대 50%까지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연구팀은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 작물의 생산량을 늘리고자 하는 연구는 육종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중 하나이다. 그러나, 재배기술이나 육종방법 등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미국 농가를 기준으로 일반적으로는 생산량이 해마다 약 2%정도 증가에 그친다고 한다.

이 연구 결과만 두고 본다면 가히 제 2의 녹색혁명을 가져올 만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유전자 변형작물이라는 가장 큰 난제가 있지만 기존의 식물의 유전자를 다시 식물에 도입해서 얻은 결과이고, 지금 가장 빠른 연구진행을 보이고 있는 유전자 가위기술 등의 응용으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빠른 시일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러한 기술이 실제 응용이 된다면 현재 우리가 처한 농업의 현실에서 최소한의 농지, 인력, 에너지로 최대한의 생산물을 산출할 수 있는 제2의 녹색혁명이 진짜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식장산 전망대 무료 와이파이서비스 제공

동구, 전망대 부근서 방문객 누구나이용 가능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민선7기 관광동구 활성화의 일환으로 식장산문화공원 전망대 방문객을 위한 무료 와이파이(Wi-Fi)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식장산문화공원을 찾는 많은 관광객이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KT와 함께 지난월부터 전망대에 케이블 포설 및 장비 설치 등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해왔다.

6일부터 본격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식장산 전망대 부근에서 누구나 스마트폰과 태블릿, 노트북 등 단말기를 통해 고품질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산 정상에서도 데이터 걱정 없이 SNS 등을 통해 시대 전경, 등산 인증샷 등을 곧바로 전송할 수 있어, 지역 관광명소인 식장산 홍보에도 특별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는 내년도 하반기 중으로 비콘 서비스를 활용해 전망대 방문객들이 와이파이 연결 시 동구 8경과 행사·축제,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 등 지역 관광자원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윤석주 기획공보실장은 "이번 와이파이 서비스로 식장산을 찾는 주민들을 위한 편의 서비스 제공은 물론이고 정보 확산성이 높은 SNS를 활용한 홍보에도 탁월한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E-mail: d-mail@hmail.net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외부 편집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2008년 5월 17일 창간 젊은생각·바른신문		
발행·편집인 김현정 전화안내 042)538-3030 구독배달안내 042)538-1602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63-2 인쇄처 : 동양인쇄	회장 김성구 기사제보 042)538-1601 광고신청안내 042)538-1603 ☎ 02)6406-5921	논설위원 조정호 팩스번호 042)538-2211 구독료 월1만3000원 1부 700원 팩스 02)392-5143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이제는 전광판 시대
광고문의는 대전투데이로

광고문의 : 042-538-3030